'녹색은 삶을 이롭게 해요!'

(사)전남녹색연합

제14차 2023년 정기총회

일 시 : 2023년 2월 16일 목요일 (18시 30분)
장 소 : 전남녹색연합(광양읍 인서중앙길42)

전남
녹색연합
Green Korea Jeonnam

총회 순서-

〔 제1부 기념식 〕

- 개회식 선언
- 녹색연합 전문과 4대 강령 낭독
- 녹색인의 수칙 낭독
- 정기총회 회원 소개
- 상임대표 인사말

〔 제2부/보 고 〕

- 2022 회의록 보고
- 2022 감사보고
- 2022 활동보고
- 2022 결산보고

〔 안 건 〕

제 1호 안건 - 2023년 임원선출 안
제 2호 안건 - 2023년 사업계획 안
제 3호 안건 - 2023년 예산계획 안
제 4호 안건 - 2023년 정관개정 안
제 5호 안전 - 2023 임원 선임 및 해임 위임 안

- 시상식(아름다운 지구인상/녹색인상)

폐회선언
모두 함께 노래

〔 부 록 〕

(사)전남녹색연합 정관
성명서/언론보도자료
햇볕(노래)

녹색연합 강령

전남
녹색연합
Green Korea Jeonnam

녹색연합 4대 강령

전 문

자연을 거스르는 문명에 미래는 없다. 녹색은 생명과 평화다. 녹색은 생태순환형 사회를 바탕으로 다양성을 존중한다.

지구 생태계 위기는 곧 인류 문명의 위기다. 녹색운동의 깃발이 굳건해야 하는 이유다.

우리는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악화, 사회적 불평등을 넘어 정의로운 녹색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생명존중, 생태순환형 사회 건설, 비폭력 평화 실현, 녹색 자치 실현 등 녹색운동의 선명한 선언은 이 시대의 분명한 이정표다.

4대 강령

생명 존중

ㅇ 우리는 모든 생명의 가치와 권리를 존중한다.

ㅇ 우리는 생명의 터전인 산림생태계, 하천생태계, 해양생태계 등을 보전하고 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ㅇ 우리는 생태계를 교란하고 생명윤리를 위협하는 유전자 조작과 유해화학물질 사용에 반대하며, 생명안전과 생태계 질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생태순환형 사회의 건설

ㅇ 우리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중심의 왜곡된 경제체제를 극복하고 생태순환형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ㅇ 우리는 우리 삶을 성찰하고 절제된 소비를 통해 소박하고 작은 것이 아름다운 생활양식을 정착시켜 나간다.

ㅇ 우리는 미래세대가 기후위기에서 벗어날 권리를 존중하며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노력한다.

ㅇ 우리는 핵 발전과 화석연료 중심의 잘못된 에너지체계를 바로잡고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꾀한다.

비폭력 평화의 실현

ㅇ 우리는 모든 종류의 폭력과 차별을 거부한다.

ㅇ 우리는 전쟁의 종식과 평화를 위협하는 살상무기 폐기, 전쟁위협을 일으키는 군비경쟁과 군수산업 중단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ㅇ 우리는 모든 생명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ㅇ 우리는 나이, 성별, 빈부, 신체조건, 성 정체성과 지향, 출신으로 인한 차별을 막고 사회 약자의 권리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녹색자치의 실현

ㅇ 우리는 참여민주주의와 자치, 분권을 위해 노력한다.

ㅇ 우리는 환경문제로 인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환경권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ㅇ 우리는 서로 협력하고 공존하는 생태마을, 생태도시, 녹색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한다.

ㅇ 우리는 녹색운동의 발전을 위해 나라 안팎의 사회운동세력과 연대한다.

강령제정 2000. 4. 1

강령개정 2001. 6. 23

강령개정 2019. 3. 16

강령개정 2021. 6. 23

녹색인의 수칙

○ 모든 생명을 존중한다.

○ 섬김과 나눔, 아낌과 보살핌을 실천한다.

○ 육식을 줄이고, 음식을 절제한다.

○ 단순하고 소박하게 산다.

○ 미래세대와 약자의 입장을 존중한다.

○ 늘 마음의 여유를 가지며 느리게 산다.

○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한다.

○ 한 달에 한 번 이상 자연에 든다.

○ 열린 마음으로 토론과 과정을 중시한다.

○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대를 만들어간다.

수칙제정 2001. 6. 23

(사)광양만녹색연합 2023년 정기총회 회원명단

강기연	김미자	김정희	박미라	백성일	안영헌	이순심	장영순	주성일
강미영	김민주	김종례	박미선	백은미	안은현	이아령	장영애	주현숙
강민형	김병무	김종술	박발진	백종성	안지영	이연주	장영현	진동수
강삼연	김병숙	김주호	박병열	백종태	안창욱	이용재	장인정	진유연
강성수	김보라	김지혜	박상옥	백진희	안채율	이용호	장지원	차유경
강성윤	김보훈	김진석	박선영	백형석	안혜숙	이윤미	장춘배	최다영
강신금	김복숙	김진일	박성훈	백희주	안화자	이윤미	장혜영	최두식
강신향	김상기	김진현	박수동	변 만	양관수	이윤섭	전봉우	최선실
강애경	김상욱	김진홍	박수완	변한나	양선	이윤숙	전현미	최성문
강애란	김석경	김춘선	박수현	봉태영	양선례	이은숙	전화숙	최슬예
강영난	김선근	김쾌생	박수희	이효재	양선비	이은옥	정금화	최쌍우
강은주	김성주	김태성	박용훈	서 경	양순희	이은유	정명희	최연주
강재현	김성호	김필권	박은실	서경숙	양순희	이재민	정문희	최영혜
강진주	김성희	김하림	박은주	서광석	양일혁	이재인	정미양	최유미
강필성	김소령	김행춘	박은희	서연희	양재희	이재진	정민자	최지연
고근영	김수한	김현숙	박자영	서영도	오수진	이재찬	정보미	추정용
고영석	김숙현	김현향	박정선	서영미	오용석	이정빈	정상수	추진희
고유진	김순심	김형근	박정실	서영심	오제범	이정심	정상현	탁대원
고은성	김승민	김형환	박정아	서은진	유다정	이정택	정선경	피옥순
고춘숙	김신자	김혜진	박정아	서정신	유재석	이종관	정순자	하자현
공성복	김심미	김홍기	박종택	서준열	유지영	이종호	정영철	하주미
곽수연	김애리	김 환	박주식	서혜성	유현주	이주노	정용성	한신자
구복희	김양임	나유미	박준수	서희숙	윤소영	이주현	정운범	한주아
구정애	김양환	남금표	박준행	섬진다원	윤숙미	이지혜	정유미	한지숙
구정준	김연호	노동진	박진숙	성무성	윤정숙	이평재	정윤경	한혜숙
구황회	김영복	노종남	박진순	성하철	이경자	이한나	정은아	한훈섭
권연임	김영심	노종진	박진아	손귀희	이경재	이현옥	정종구	함충호
권지민	김완서	덕심언니	박찬배	손미애	이고울	이현주	정종희	허경엽
기복순	김용주	류하영	박창권	손상용	이광식	이현철	정주섭	허경희
김감오	김용주	문은철	박철웅	손정인	이기욱	이현택	정진욱	허명국
김경주	김용하	문정식	박표진	손채영	이길우	이혜경	정해도	허선식
김경주	김우곤	문혜연	박필순	송규환	이남로	이혜진	정혜경	허순심
김광배	김유탁	민화정	박향순	송명종	이남옥	이효순	정혜윤	허용두
김금숙	김은영	박경숙	박현아	송은경	이도경	일화스님	조경선	허 윤
김대희	김은영	박경자	박현정	송은주	이돈관	임동근	조규홍	허윤지
김두래	김은하	박경희	박현조	송정희	이돈권	임명순	조선희	허형기
김만재	김은향	박귀주	박형순	송지아	이동구	임순희	조성희	현능스님
김명순	김은형	박금숙	박환섭	송찬규	이동원	임승관	조영선	혜총스님
김명희	김의성	박다연	박회경	신승건	이미은	임진모	조영하	홍기복
김미강	김이권	박두규	배선화	신옥염	이민영	임태섭	조 은	홍순관
김미숙	김이레	박말례	배영일	신왕식	이상호	장대범	조재경	홍영민
김미숙	김재무	박명희	배정자	신임숙	이서진	장미정	조충현	황선주

김미영 김재흥 박문섭 배현미 아침햇살 이성민 장봉현 조현철 황은영
김미자 김정태 박미경 배현수 안순심 이순례 장영림 주복실
㈜동광양장례식장, 광양기혼치과기공소, 세풍모터스, 야옹아 멍멍해봐, (유)환경열경제연구소,
파란직업전문학교, 하루디자인

▶평생회원 : 고영석, 구황회, 김광민, 김주만, 김재열, 김윤필, 김철표, 노동진, 박노신,
박수완, 박우훈, 백종성, 변 만, 서혜석, 송찬규, 양광동, 이동원, 이미은, 이용재, 이재민,
이재옥, 이재현, 이평재, 임국상, 장지원, 정용성, 조충현, 최순동, 한훈섭

(사)광양만녹색연합 2022년 정기총회 회의록

◎ 회의명 : 2022년 정기총회 및 임원선출
◎ 일　시 : 2022년 2월 22일 19시
◎ 장　소 : (사)광양만녹색연합 교육장&비대면 온라인(Zoom)회의

1. 정기총회
사회자 최광철 운영위원 정기총회 시작을 알리다.

2. 4대 강령낭독 및 녹색인의 수칙낭독
송은주 공동대표 4대 강령 및 녹색인의 수칙을 낭독하며 잠시 묵상하다.

3. 성원보고, 개회선언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 우려로 2022회원총회는 대면과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대면 8명과 비대면 36명 (총 44명) 참석으로 박수완 사무처장 성원 보고 후 현능 총회의장이 총회개회 선언을 하면서 시작하다

4. 인사말
총회 의장이신 현능 상임대표 인사말을 하다.

5. 서기지명
2022년 정기총회 서기는 박미선 팀장이 기록 하다.

6. 지난 회의록
박발진 공동대표 서명 확인을 받아 지난 총회 회의록 승인 되다.

7. 2021년 감사보고
노동진 회계감사 개인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워 위임, 김용주 사업감사 감사보고 하다.

8. 2021년 활동보고
박수완 사무처장 활동보고 하다.

9. 안건 심의

1) 제1호 안건 2022년 사업계획 안 승인의 건
현능 총회의장 박수완 사무처장에게 사업계획 설명을 요구하고 이에 사무처장이 2022년 사업계획을 설명함. 현능 총회의장이 회원들에게 이의를 물어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2022년도 사업계획안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하다.

2) 제2호 안건 2022년도 예산계획 안 승인의 건
현능 총회의장이 박수완 사무처장에게 예산계획 설명을 요구하고 이에 사무처장이 2022년 예산계획을 설명함.
현능 총회의장이 회원들에게 이의를 물어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2022년 예산 계획안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하다.

3) 제3호 안건 정관 개정 및 단체명 변경 안 승인의 건

현능 총회의장이 박수완 사무처장에게 정관 개정 및 단체명 변경 설명을 요구하고 이에 사무처장이 정관 개정 및 단체명 변경 취지를 설명함. 광양만녹색연합 정관 제1조(명칭) 본 모임은 '~~(사)광양만녹색연합~~'(이하"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정관 제2조(목적) 본 모임은 녹색연합의 4대 강령(생명존중·생태순환형 사회의 건설·비폭력 평화의 실현·녹색자치의 실현)의 실현과 ~~광양만권~~ 지역에서 녹색생명활동과 생태계보전활동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정관 제5조(사업) 6. ~~광양만권~~의 환경현안 해결을 위한 국내·외 환경단체 및 사회단체와 연대사업

현능 총회의장이 회원들에게 이의를 물어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정관 제1조(명칭) 본 모임은 '(사)전남녹색연합'(이하"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모임은 녹색연합의 4대 강령(생명존중·생태순환형 사회의 건설·비폭력 평화의 실현·녹색자치의 실현)의 실현과 '전남지역'에서 녹색생명활동과 생태계보전활동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 6.전라남도의 환경현안 해결을 위한 국내·외 환경단체 및 사회단체와 연대사업 원안대로 승인 되었음을 선포하다.

4) 제4호 선출직 임원 선임 및 해임 위임 안 승인의 건

현능 총회의장이 박수완 사무처장에게 선출직 임원 선임 및 해임 위임 안 설명을 요구하고 이에 사무처장이 선출직 임원 및 해임 위임 안 설명함.

현능 총회의장이 "총회 승인 사항인 선출직 선임이 회기 중에 발생 될 수 있으므로 원활한 회 운영을 위해 추가 선임이 필요할 시엔 운영위원회에 위임해 줄 것을 요청"한 선출직 임원의 선임과 해임 위임의 안에 대해 회원들에게 이의를 물어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하다.

10. "올해의 녹색인" 상 및 '아름다운 지구인' 상 시상

녹색인상은 지난 한 해 동안 녹색교육운동과 생명운동 그리고 녹색시민교사 동아리를 3년 동안 이끌어주신 이미은님과 두꺼비서식지 보호와 미세먼지 조사 등에 지속적으로 관심가져 주시고 참여해 주신 임진모회원가족 수여함. 아름다운 지구인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세계시민포럼을 통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며 단순히 지적탐구에 머물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기후정의 의제 발굴에 기여를 한 광양제철고등학교 세계시민포럼 위원회 학생들이 수여함.

11. 폐회

현능 총회의장님이 폐회를 물어 동의와 제청으로 폐회를 선언하다.

2022년 2월 22일

서기 : 박 미 선

정기총회	회의록승인	
	고은성	이혜정

2022년 사업 감사보고

본 감사는 전남녹색연합의 2022년 사업 연도와 관련한 업무 감사를 실행하고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감사 방법의 개요

1) 사업 감사를 위하여 사전에 조직, 재정, 회원, 사업에 관한 활동 보고 및 평가 서류를 열람하고 2022년 진행된 운영위원회 회의 자료와 회의록, 그리고 2022 세부 수입 지출 결산안 등을 살펴보았으며 한 해 동안 전남녹색연합 명의로 발표되었던 성명서와 기자회견, 언론사 보도자료 등을 신중히 검토하였습니다.

2) 2023년 2월 6일에 박발진 공동대표와 박수완 사무처장으로부터 사업 진행에 대한 보고를 듣고 적절히 사업이 진행되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2. 감사 의견

1) 2022년 한 해 동안 전남녹색연합 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씩 총 11회가 진행되었습니다(휴가기간인 8월은 자료보고로 대체). 논의된 회의 자료와 회의록 등은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회의에서는 운영위원의 다수 참여로 진행되었으나 5월과 12월의 경우 과반수에 못 미치는 운영위원의 참여로 진행된 점은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2) 2022년 한 해 동안 본 회의 신규 가입은 73명으로 전년도에 비해선 다소 줄긴 했으나 평년에 비해 여전히 높은 회원 가입이 있었습니다. 늘어난 신규 회원 가입은 운영위원 및 활동가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자발적 신규가입이 늘어난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라 평가할 만합니다.

3) 지난 총회를 통해 광양만녹색연합은 전남녹색연합으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광양만권을 넘어 전남 지역 환경 문제까지 좀 더 확장된 활동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회 사무처가 924기후정의행진 집중행동을 위한 전남도 시민사회에 참여를 제안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앞으로 기후위기 대응뿐만 아니라 전남 지역 환경 문제에 대한 지역 시민사회 연대 활동 과정에서 전남녹색연합의 고유한 역할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사무처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업무 분담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지난해 파타고니아 1% 나눔사업 공모 지원으로 진행한 제철소 주변지역 공해 및 생활환경 피해조사 활동이 여러 어려운 과정에도 불구하고 충실히 진행되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조사 홍보 및 대상자 모집, 연구진행과 결과 보고서 완성,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전남녹색연합과 광양시의회가 공동 주최한 제철소 및 주변지역 주민권익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 포럼까지 이루어낸 점은 높이 평가할만합니다. 이는 지역 환경 문제에 대한 당위적 요구가 아닌 실체적 자료를 취합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키워감으로써 지역 공해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 마련의 기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향후 시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의미있는 공해 피해 구제를 위한 조례 제정까지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5) 지난해 세풍습지 보호와 송전선로 개발 저지활동 과정에서 지역민과 연대 활동의 성과와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역민들의 요청으로 시작되었던 이 활동은 지자체, 지역주민, 녹색연합 간의 관계 부처 논의를 통해 서로의 입장이 논의되고 조율해 가는 과정이 성과로 인정되나 결국 녹색연합은 배제된 채 지자체와 지역민들 간의 자체 합의로 세풍송전선로 공사재개가 승인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녹색연합의 입장에서는 다소 아쉬운 결과임에 분명합니다. 더불어 이번 경험이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환경 현안 대응에 관한 입장과 태도를 어떻게 취해야 할지에 대한 좋은 선례가 되었으면 합니다.

6)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된 작년 한해는 회원사업이 적극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회원자녀를 대상으로 한 자람생태학교를 비롯해 매월 1회 회원들과 만남의 시간인 들내지기, 그리고 새로이 진행된 도심텃밭&자투리텃밭 가꾸기 등 회원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생태시민을 키워나가기 위한 여러 교육 활동 또한 적극적으로 펼쳐졌습니다. 이를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사무처와 녹색 교사님들의 활동이 컸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8) 2022년 한 해 동안 전남녹색연합의 꾸준한 활동을 위해 애써주신 공동 대표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 그리고 사무처 활동가님들 그리고 함께 참여해주신 많은 회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미래 사회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나가길 빌어봅니다.

2023년 2월 10일

사업 감사 김 용 주

회계감사 보고

감 사 보 고

사단법인 광양녹색연합의 2022년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서류를 제출 받아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법인의 결산은 지출결의서 및 출금전표와 입금전표를 기초자료로 작성되고 있으며 매월의 결산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은 기부금수입 83,904천원을 포함하여 118,798천원의 수입이 있었으며, 지출의 경우 사무국장 및 간사의 급여 44,766천원을 포함하여 운영비용 71,737천원과 사업비용 52,184천원이 발생하여 2022년 잉여손실이 4,776천원입니다.

법인의 자산으로 임차보증금 3,000천원과 금융자산 44,724천원, 2022년 적립한 5,000천원 및 비품이 있습니다.

법인의 2022년 회계관리는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결산자료 또한 명확히 작성되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8일

노 동 진

운영성과표

제 13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단법인 전남녹색연합 (단위:원)

과 목	제 13(당)기	
	금 액	
Ⅰ.사 업 수 익		118,798,423
기부금수입	83,904,333	
보조금수입	20,360,000	
회비수입	1,230,000	
기타고유목적수입	13,304,090	
Ⅱ.사 업 비 용		52,184,150
사업수행비용	50,208,112	
모금비용	1,976,038	
Ⅲ.운 영 비 용		71,777,118
급여	44,765,660	
상여금	2,200,000	
퇴직연금	2,613,816	
사회보험부담금	9,414,390	
복리후생비	1,413,170	
교육훈련비	100,000	
임차료	2,400,000	
수도광열비	883,440	
감가상각비	819,949	
회의비	614,580	
여비교통비	591,700	
통신비	660,300	
세금과공과_기타	288,830	
도서인쇄비	404,100	
사무용품비	2,570,380	
지급수수료	671,803	
접대비	125,000	
기부금	300,000	
3%기금	940,000	
Ⅲ.사 업 이 익		(5,162,845)
Ⅳ.사 업 외 수 익		386,731
기타수입	386,731	
Ⅴ.사 업 외 비 용		-
Ⅵ.당 기 잉 여 금		(4,776,114)

재 무 상 태 표

제 13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사단법인 전남녹색연합 (단위: 원)

과 목	제 13(당)기	
	금 액	
자 산		
I.유 동 자 산		44,723,599
(1)당 좌 자 산		44,723,599
보 통 예 금	44,723,599	
II.비 유 동 자 산		8,000,000
(1)투 자 자 산		5,000,000
적 립 금	5,000,000	
(2)유 형 자 산		-
비 품	4,099,742	
감가상각누계액	(4,099,742)	
(3)무 형 자 산		-
(4)기타 비유동 자산		3,000,000
임 차 보 증 금	3,000,000	
자 산 총 계		52,723,599
부 채		
I. 유 동 부 채		-
미 지 급 비 용		-
II. 비 유 동 부 채		-
부 채 총 계		-
순 자 산		
I. 자 본 금		1,543,358
출 연 금	1,543,358	
II. 잉 여 금		51,180,241
미처분이익잉여금	51,180,241	
순 자 산 총 계		52,723,599
부채와 순자산 총계		52,723,599

2022년 활동보고

Ⅰ. 조직운영

1. 총회

- 일시 : 2022년 2월 22일(화) 19~20:30
- 장소 : 전남녹색연합
- 방법 : 대면&비대면 온라인
- 참가 : 44명
- 내용 : '기후위기 대응 슬기로운 녹색생활!'
  본회의 (감사보고, 2021년 활동 및 결산보고)
  2022년 활동계획 및 예산안 심의, 임원선출
  시상식(아름다운지구인상:광양제철고등학교 세계시민포럼 위원회/
  녹색인상:임진모, 이미은님)

2. 운영위원회

- 기간 : 2022. 2월 ~ 2023. 1월
- 참여 : 11명/ 현능스님, 송은주 박발진 김의성 이경재 김양임 이미은 박경숙 강필성 최광철 박수완
  박미선 장영림(참관:팀장/수습활동가)
- 내용 : 매월1회/총11회(8월 운영회의는 활동보고 및 결산자료로 대체)

횟수	날짜	주요 논의내용	참여(명)	위임(명)
1	2.22(화)	정기총회 개최, 임원선출, 활동사업, 예산심의	44	
2	3.17(목)	녹색연합 전문 및 4대 강령 읽기 단체명 변경 등기 및 보도자료 배포 광양여순1019 시민연대 출범	10	1
3	4.21(목)	녹색인의 수칙 함께 읽기 운영위원 내규 검토 및 개정 생태전환 공론화 회원 경조사	8	3
4	5.19(목)	생명으로 돌아가기 함께 읽기 전남동부지역 기후환경정책 분석 지방선거 후보자 기후·환경정책 제안서 준비	5	6
5	6.16(목)	코로나19 팬더믹이 남긴 질문들 이야기 민선8기 광양시장 기후환경정책 자문위원촉 및 정책제안 60+기후챌린지	7	5

횟수	날짜	주요 논의내용	참여(명)	위임(명)
6	7.21(목)	간사 채용공고 및 수습활동가 교육 2022창립기념행사 일정 논의 광양제철소 공장장 교육의 건	10	1
7	8.18(목) 자료보고	9월 들내지기 참여 924기후정의행진 수습활동가 보고	11	0
8	9.16(목)	수습활동가 컴퓨터 구입의 건 삼보일배오체투지 사업공모 후원행사 세부기획안 보고	10	1
9	11.19(목)	10, 11월 운영회의 후원행사 결과보고 제철소 주변지역 공해 및 생활환경 피해 조사 결과보고 순천남정공원 주민의견서 제출의 건 대구경북녹색연합 통합신공항 및 맑은물 하이웨이 활동에 대한 지역조직 의견	6	4
10	12.15(목)	회원총회 일정 논의 및 준비위원회,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2023활동가 급여의 건(최저임금)	5	6
11	1.19(목)	2022활동보고, 결산보고 2023사업계획안 신입운영위원 추천의 건 2023활동가 급여(8시간/7시간 집행)	10	1

Ⅱ. 회원·재정확대

1. 회원 및 회비 현황

1) 회원 현황

(1) 회원유형별 현황

정회원		준회원	탈퇴자	비고
일반회원	평생회원			
395	39	135	34	
434				

※ 정회원 : 회원이 약정한 대로 회비 납입 요청을 하여 회비 납입이 되고 있는 회원
준회원 : 6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고 있지 않는 회원, 후원행사 및 일시후원

(2) 월별 회비납부방법별 현황 (정회원 기준)

구분	계	CMS	계좌이체	연납	평생회원	기타
회원수(명)	434	385	8	2	39	

(3) 회원 거주지 현황

거주지	계	중마동	광양읍	순천	여수	전남	기타	미등록
2021년	410	128	130	87	13	15	35	4
2022년	395	144	98	97	13	14	27	

(4) 연도별 신규가입 현황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가입수	37	101	73	

2) 2022년 신규회원 현황

(1) 가입 동기별 현황

동기별	계	회원권유	대표&운영위	자람생태	활동가권유	자발적
가입수	73	8	23	9	28	5

Ⅱ. 회원·재정확대

3) 월별 회비현황

- 경상비내 회원사업비 포함되지 않음

월	납부회원(명)	회비(원)	기부금	비고	경상비	비고
1	339	4,145,000	138,680	회원기부	7,557,656	상여금 ZOOM사용료
2	337	3,865,000	108,000	회원기부	6,023,656	
3	340	5,375,000	200,000	회원기부	5,922,496	MRM사용료
4	346	4,215,000	-	-	5,940,598	
5	342	4,205,000	-	-	5,190,146	
6	350	4,325,000	720,970	회원기부	4,026,194	
7	341	4,255,000	1,421,357	회원기부	4,649,518	
8	343	4,305,000	919,990	회원기부	4,916,183	
9	349	4,425,000	1,500,000	창립기념 행사	8,074,693	상여금 컴퓨터구입
10	365	4,435,000	85,856 20,427,910	회원기부 창립기념 행사	5,870,523	
11	371	4,575,000	744,500 2,225,000	회원기부 창립기념 행사	6,441,253	
12	374	4,695,000	2,592,070	회원기부	6,304,293	
합계	**4,197**	**52,820,000**	**31,084,333**	**83,904,333**	**70,917,209**	**△12,987,124**
		***회비월평균 : 350/ 4,401,660**		***월평균 경상비: 5,909,760**		

Ⅲ. 사업 활동보고

생태계보호 생물다양성 보전 운동

<table>
<tr><td>사 업 명</td><td>양서류 서식지 보호 사업</td></tr>
<tr><td>사업목표</td><td>두꺼비 서식지보호, 로드킬 문제개선, 양서류 보호 인식증진, 양서류 및 서식지보호 활동 확대
전국 양서류 서식지보호 사례 공유 및 활동가 네트워크</td></tr>
<tr><td>사업내용</td><td>◯ 비촌저수지 로드킬 주요 요인 우수로 퇴적물 정화 활동(1월)
◯ 비촌마을 성체 두꺼비 이동 돕기, 로드킬 및 실태조사(2~3월)
◯ 순천 업동저수지, 로드킬 조사(2~3월)
◯ 새끼두꺼비 이동 돕기 시민참여 확대(5-6월)
◯ ‘우리 두꺼비 만나러 가요.’ 시민캠페인(5월)
◯ 양서류 서식지보호를 위한 워크샵/학술연구 분야, 보호사례 공유 등(9월)</td></tr>
<tr><td>세부활동
및 평가</td><td>- 1월 로드킬 방지를 위한 우수로 정화활동(1.26)
- 2월 ‘자연과 생명에 안부를 묻다’ 생명평화 음악회, 섬진강 두꺼비 이야기(순천만습지센터 2.26)
- 3월 3월1일 두꺼비 산란이동 시작(총:111마리,암컷:17,수컷94,산개구리 암컷5,수컷7,도롱뇽2) 전년도(22.01.22)에 비해 늦음, 봄 가뭄의 영향
- 산란후 서식지로 이동하는 두꺼비 로드킬 저감 임시차단막 설치(3.11)
- 새덕후 김어진 두꺼비 로드킬 문제 영상촬영(3.11-13)
- 4월, 산란지 올챙이 성장 과정, 주1회 모니터링, 새끼두꺼비 이동 시기 예측
- 2022 성체두꺼비 이동 및 로드킬 현황(비촌마을, 비평저수지)
<table>
<tr><th rowspan="2">년</th><th rowspan="2">산란시기</th><th rowspan="2">로드킬현황</th><th colspan="3">포획/이주</th></tr>
<tr><th>암컷</th><th>수컷</th><th>총계</th></tr>
<tr><td>2019</td><td>02.18~03.04</td><td>147</td><td>177</td><td>821</td><td>998</td></tr>
<tr><td>2020</td><td>01.24~02.25</td><td>240</td><td>91</td><td>459</td><td>550</td></tr>
<tr><td>2021</td><td>01.22~03.05</td><td>569</td><td>385</td><td>1,447</td><td>1,832</td></tr>
<tr><td>2022</td><td>03.01~03.14</td><td>296</td><td>193</td><td>1,098</td><td>1,291</td></tr>
</table>
- 순천업동저수지 두꺼비 로드킬 3.1~3.15일 7마리 로드킬 조사
- 순천kbs뉴스 보도, 광양시 다압주민센터 개발과정 산란지 훼손 문제제기, 다압초등학교 두꺼비 산란지 올챙이 이동돕기 및 캠페인 mbc보도
- 5월, ‘우리 두꺼비 만나러 가요.’시민캠페인(120여명 참여5.5)
- 순천 업동저수지 ‘생물다양성 업동 저수지 음악회’
- 5~6월 새끼두꺼비 이동 돕기, 가뭄으로 집단이동 관찰이 어려워짐, 습도가 높은 밤에 이동하는 것으로 보임
- 9월 맹꽁이 심포지엄, 양서류 서식지 보호활동 공유(전남녹색연합/박수완), 양서류 보전 활동가 워크샵(대구환경교육센터/대구달성습지 디아크 문화관)
-10월 다압초등학교 두꺼비 산란지 모니터링 발표회</td></tr>
</table>

활동사진	
사 업 명	**세풍습지 보호 및 송전선로 개발 저지활동**
사업목표	세풍습지 멸종위기 보호종 보호를 위한 송전선로 개발 저지 세풍습지 4계절 조사요구(멸종위기 보호종 보호대책 마련) 세풍습지 철새도래지 보호대책 마련 및 습지 등록 사회적 공감 확대
사업내용	○ 송전선로 개발 저지를 위한 세풍발전협의회와 연대 ○ 세풍철새도래지 노랑부리 저어서 보호대책 마련 촉구 1인 시위 ○ 세풍송전선로 공사중단 및 겨울철 철새 현지조사 ○ 세풍습지 4계절 조사를 위한 정책제안 및 시민모니터링 사업공모
세부활동 및 평가	- 1월 세풍 송전선로 개발 관련 공청회 대응 및 지중화 촉구 - 1월 공사중지 행정명령, 노랑부리저어서 보호대책 마련 촉구 1인 시위 - 1~2월 세풍 저류지 현지조사 - 세풍철새도래지 겨울철 철새 현지조사 결과보고서(초안/김인철,이기섭) 멸종위기 1급 매를 비롯, 천연기념물이자 보호종2급인 큰고미, 큰기러기, 노랑부리저어새, 황조롱이, 독수리, 잿빛개구리매, 새매, 참매, 검은머리갈매기 총 9종의 멸종위기 법정 보호종 조사, 세풍발전협의회 광양시 자원순환과에 공유

	- 3월 세풍철새도래지 겨울철새 현지조사 결과보고 대응(멸종위기 1급 매, 천연기념물이자 2급 보호종 큰고니,큰기러기,노랑부지저어새,황조롱이,독수리,잿빛개구리매,새매,참매,검은머리갈매기 총10종의 멸종위기 보호종 조사) - 현지조사 결과 관계부서 대책회의(광양시 지역경제과/녹색연합/마을대표/3.8) - 세풍습지 보호를 위한 의견서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발송 - 세풍발전협의회 지역주민들에게 연대 및 연명 제안 세풍습지 보호 촉구 성명서 배포(15개단체 연대) - 4월 세풍송전선로 공사재개 승인 (4.4공사재개승인/한전+광양시+마을발전협의) - 공사재개 승인 규탄성명(4.19/인근마을(3개 마을) 13억 발전기금, 세풍6개마을 대표로 세풍발전협의회 4억4천만원 발전기금 합의) - 6월 민선8기 광양시장 당선인 면담 및 인수위원회 환경자문위 위촉, 세풍습지 보호를 위한 정책제안 - 8월 오체투지 환경기금 세풍습지 사계절 시민모니터링 사업공모 -12월 전남녹색연합 연안해양포럼 '세풍습지 보호를 위한 4차 포럼 기획'
활동사진	
사 업 명	**생물다양성보호 연대**
사업목표	전라남도 지역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네트워크 순천의 식물, 동물, 양서류,파충류, 조류 및 곤충 생물다양성 조사 시민들과 지역사회의 시민단체들과 함께 생물다양성 조사를 통해 생물종다양성 인식 증진과 생태감수성 회복
사업내용	○ 4월 보성습지생태관 간담회(보성습지생태관 활용 및 보전방안) 보성습지생태강사 양성과정(생태전환사회/양서파충류 교육) ○ 5월 순천지속협 1박2일 생물다양성 조사 지원(5.20~21)
세부활동 및 평가	- 보성습지생태관을 활용하여 지역주민 및 학생들에게 교육을 통해 습지의 가치와 보호를 위한 인식증진 확대 - 순천지속가능한발전협의회 주최 순천지역의 생물다양성 조사에 연대하며 시민사회와 네트워크 강화와 소통

Ⅲ. 사업 활동보고

기후위기 대응

사 업 명	전라남도 녹색전환 10대 정책 만들기
사업목표	○ 전남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구체적 실행방안 정책 제안 ○ 녹색전환을 위한 전남 주요정책 의제 발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전환사회 공론회장 형성 ◯ 대선 및 지방선거에 기후위기 정책 부재 심각성 인식 및 대안 마련
사업내용	-3월 녹색전환 전남시민사회 공론장 준비 -4월 전남 녹색전환 정책 집담회 녹색전환연구소 사전모임(4.11) -전남녹색전환 13개 정책 집담회(소모임 퍼실역할/4.12) ① 무엇을 어떻게 할 것 인가(계획,목표,지표 등)온실가스 감축목표 세우기(2018년 대비 40%줄이기)/ 좋은 삶은 추구, 불평등 해소, 일자리 창출, 자살률 감소를 설정 / 생물다양성 보전, 증진을 위해 생물종 생태계 대조사 시스템 구축, 생태발자국, 깃대종, 녹지 보호 지표설정 ② 어떻게 할 것인가? 5대 기반, 2개 연대정책 준비 실행, 기후대응기금 예산으로 451억원 마련, 탄소인예산제도를 시행, 예산과 기금 사용에 온실가스 감축을 적용하고 온실가스 다배출 정책은 중단하거나 전환하는 조례를 제정 ③ 학습·인식 생태전환교육 교육예산 1인당 1만원 183억원 확보, 기본학습권 마련, 정책결정권자 및 공무원, 주민자치회를 대상 기후에너지 교육 필수 이수제도 마련 ④ 기후재난 대비 돌봄 시스템 구축 ⑤ 농업·먹거리 생산전환 기틀마련, 공공급식 주1회 채식의무 확대, 생산유통과정에서 버려지는 먹거리 25% 줄이기 ⑥ 에너지전환 ⑦ 건물,주거,비주거, ⑧ 교통,이동,수송 ⑨ 순환사회 ⑩ 전환경제,기후일자리,사회적경제,사회적금융 ⑪ 생물다양성 ⑫ 기후난민, 다문화사회 ⑬ 탈핵 한빛원전 3,4호기 폐로와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 운영금지 전남도는 탈핵!!! -5월 전남도지사 기후환경정책 제안서 전달 ①전남도 산업, 비산업, 농업과 축산 부문, 각분야별 목표 설정 및 실행방안 요구 ②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의 책임을 강화시키고 온실가스 감축 투자와 재생에너지 투자 기업에게 인센티브나 보조금 지급 등 정책을 도입 ③산업, 건물, 교통, 주거, 농업 등 분야별, 지역별 감축목표 선정 ④지역별 1인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고려하여 전남도민 1인 배출량 등 촘촘한 감축목표를 세워 시민실천 운동으로 확대 필요 ⑤농축산업 분야 화석연료 중심에서 재생에너지 전환 지원 시스템 구축 관련 조례 및 예산지원 등을 적극 도입해야 함. -6월 세계환경의 날, 기후환경정책 없는 2022 지방선거를 돌아보며 성명문 배포(6.3)

	-민선8기 광양시장 당선자 기후환경정책 간담회(6.27) -광양시 기후환경 4대 의제 정책제안(산업분야,비산업분야,생물다양성,정의로운 전환과 공동체회복)
세부활동 및 평가	- 2022년은 한국사회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리더쉽이 바뀌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빠르게 실행에 옮길지 중요함. - 2030년의 목표 달성은 2022년에 지역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리더쉽에 달려있고, 그것을 만드는 주체는 시민이어야 함. - 녹색전환연구소와 전남녹색연합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방정부, 우리가 살고 싶은 지역에 대한 그림을 그리며, 지역에 꼭 필요한 10대 녹색전환 정책을 만들기 위해 순천지속가능한발전협의회 공론화에 함께 참여하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세우며, 전남도 도지사 후보 및 기초단체 후보들에게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선정 및 세부 정책 등을 제안함.
활동사진	
사업명	**녹색연합 탈탄소 탈원전 에너지전환 시나리오**
사업목표	○ 국내외적 탈탄소 에너지전환 가속화의 당위성과 필요성 확대 ○ 생태순환형 사회건설을 지향하는 녹색연합의 ‘에너지전환의 기본 전체와 원칙 논의, 지역별 재생에너지 자립 핵심 전략과 정책방안 마련
사업내용	○ 4월 에너지전환 시나리오 구성의 원칙과 전제 논의 - 녹색전환 시나리오 위원회:녹색연합,인천,대전,전남,광주 사무처국장단 ○ 5월 에너지전환 시나리오 1차 세미나(5.9) - 에너지 수요전망(감축)의 중요성, 원칙, 구성요건 -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방법 - 에너지전환에 필요한 우선 쟁점 논의 주제 토의 ○ 6월 에너지전환 시나리오 2차 세미나(6.13) -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LNG는 가교역할을 할 에너지원으로 적절한가?

	- 재생에너지 이격거리를 둘러싼 쟁점 ○ 6월 에너지전환 시나리오 3차 세미나(6.29) - 재생에너지 변동성을 무엇으로 보완할 것인가? - 쟁점논의사항: 양수발전, 에너지저장장치 문제점 ○ 7월 에너지전환 시나리오 4차 세미나(7.11) - 탈핵을 완수할 시점 ○ 기후정의 길 찾기 세미나(7.18/온라인) -'에너지 공공성과 에너지 민주화란 무엇인가?(충북대학교 사회학과 홍덕화 교수) ○ 8월 에너지전환 시나리오 5차 세미나(8.9/온라인) - 산업부문 배출량,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배출권거래제 문제점 ○ 9월 에너지전환 시나리오 6차 세미나(9.6/온라인) - 전력구조, 시장개편, 전기요금 이슈 ○ 10월 에너지전환 기본 전제와 원칙 논의(10.27/커먼즈필드대전) - 녹색전환 시나리오 위원회:녹색연합,인천,대전,전남 사무처 참여 ○ 11월 에너지전환 시나리오 7차 세미나(11.25/온라인) - 탈성장 전략과 현실운동 사례(탈성장과 대안연구소 김현우 소장)
세부활동 및 평가	<2023탈탄소 에너지전환을 위한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방안 연구계획> ○ 연구기간 : 2023. 2월 ~ 8월 ○ 연구비용 : 4,000만원 ○ 연구기관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녹색연합(공동연구 참여) ○ 기대효과 - 기존 담론과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및 긍정적 성과 확산 기여 - 녹색연합의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방안 구체화 및 자체 주력사업 발굴 - 지역에너지 전환 자립을 위한 정책 대안 통한 사회적 정치적 공론화 추구
활동사진	

사업명	기후위기 전남비상행동
사업목표	○ 924기후정의행진 집중행동을 위한 전남도 사무처 역할 ○ 전라남도 및 기초단체들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마련 촉구 ○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이행촉구 ○ 전라남도 시민단체, 마을공동체, 종교 등 연대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
사업내용	○ 3월 기후위기 비상행동 20대 대선 결과에 대한 논평(3.14) 기후위기 대응 석탄버스 답사(광양제철소,태인동,배알도,여수 묘도3.29) ○ 4월 기후솔루션 제철소 현안 바이오발전소 현황 토의 ○ 6월 세계환경의날 50주년, 2022지방선거 평가 기후환경정책 요구 성명문 배포(6.3) ○ 7월 기후솔루션 철강산업 탄소중립을 위한 세미나(서울 헤이그라운드 성수시작점 7.20) - 제철소 주변지역 공해 및 생활환경피해조사 발제(전남녹색연합)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생태전환 사회(여수미래인재교육원/7.26) ○ 기후위기 전남비상행동 실무자회의 - 일시 : 2022.08.09.(화)16시 - 장소 : 순천YMCA 노플라스틱 카페 - 참여 : 기후위기 전남비상행동 집행위 10명 참여 - 내용 : 924기후정의행동 준비를 위한 역할논의, 지역별 기후행동 상황공유 ○ 8월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924기후정의행진 참여제안 간담회(목포 YMCA/8.19/16시) ○ 9월 924기후정의행진 참여선언 전남비상행동 기자회견 - 일시 : 2022.09.01.(목)11시 - 장소 : 전남동부지역본부 - 참여 : 기후위기 전남비상행동 집행위 30여명 참여 - 제철소 주변지역 공해 및 생활환경피해조사 발제(전남녹색연합) ○ 기후위기 전남비상행동 온라인 집행회의 - 일시 : 2022.09.06.(화) - 내용 : 기자회견 평가회의, 924기후정의행진 상경단 조직, 홍보, 분담금 및 버스 프로그램 논의, 924기후정의행진 포스터 홍보(순천역) ○ 924기후정의행진 집중행동

	- 버스 상경단 참가자 모집 홍보 : 2022.9.16.~ - 924기후정의행진 버스 탑승자 현황 및 세부준비사항 공유 주의사항 안내(9.19) - 924기후정의행진 칼럼기고(순천광장신문/박수완/9.20) - 924기후정의행진 버스상경/총40명 탑승(9.24) - 924기후정의행진 정산보고 및 집행부 활동가 교류시간
활동평가	-44개의 전남시민사회단체 연대 확대/10개의 집행위원 단체 구성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주요 집중행동 전남도의 기후위기 대응연대 -924기후정의행진 집중행동 서울, 3만명 이상 캠페인 참여 (집행부, 2만 명 캠페인 참여를 예상했지만 예상보다 많은 인원 참여) -언론보도 성과 : 한겨레 및 경향신문, KBS, MBC, JTBC 보도 다수
활동사진	
사업명	**우리동네 기후행동 동네방네 기후행동**
사업목표	○ 배경 -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의 상황에서 정부와 지방정부는 2030년까지 40%, 2050년 Net Zero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함

	- 2022년 새정부,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의 주요정책들 생태계 파괴를 기반으로 하는 개발중심의 정책들로 反기후·환경정책들이 난무함 -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전환은 개인의 실천으로는 한계, 정부와 지방정부의 주요정책 결정권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 -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일부 시민단체 활동가나 교육관련자 외에는 인식수준이 매우 낮음, 우리 주변에 사람들과 기후위기 대응 담론확대필요 ○ 목적 - 우리동네에 기후위기 이야기를 퍼뜨리기 - 나부터 기후행동, 소중한 가족과 벗, 이웃들에게 기후행동 제안하기 - 정부와 지방정부, 정치인들에게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 요구 - 9.18~24 기후정의행동 주간, 9.24 기후정의 행진 물결 이루기
사업내용	○ 우리동네 기후행동 준비모임&번개나눔장터/7.27) -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 ○ 8월 우리동네 기후행동 서포터즈 발족(8.2) - 활동기간 : 2022.07.27.~2023.05.30. - 서포터즈 : 녹색시민교사 10명 - 준비사항 : 2022.08월 중(주1회/총4회) 기후위기 주요학습, 생명으로 돌아가기 함께 읽기, 우리동네 기후행동 이야기 구성하기, 동네방네 기후행동 리스트 만들기 - 활동방법 및 내용 : 60+기후행동 확산, 경로당, 마을회관, 소모임 등 기후위기 이야기 퍼뜨리기, 탈탄소 마을 상상하기, 탄소를 줄이는 구체적 행동 - 이야기 나누기 : 질문1. 지금 가장 걱정되고 두려운 일은 _____이다. 질문2. 그래도 감사하고 고맙게 느껴지는 것은 _____이다. 질문3. 나의 일상을 돌아보니 나는 이미 좋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질문4. 여러분이 계획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3년 안에 무엇을 하고 싶나요? - 운영안내 : 1인 5회 우리동네 기후행동 운영(기본양식), 활동사진 사무국 공유와 홍보(개인SNS가능)
활동사진	

	음식물 조금씩 하기 플라스틱 사용X 재활용하기 쓰레기 줍기

Ⅲ. 사업 활동보고

환경 현안대응 및 지역사회 연구

사업명	제철소 주변지역 공해 및 생활환경피해조사
사업목표	제철소 공해 및 생활환경 피해조사 사회과학 연구 기초자료 제철소 및 국가산단 주변지역 주민권익 보호를 위한 사회적 공감 확대
사업내용	○ 파타고니아 1% For the planet 나눔사업 공모 지원 -사업명 : 제철소 주변지역 공해 및 생활환경 피해조사 -사업비 : 1,000,000원 -사업기간 : 2022.1~12월 ○ 제철소주변지역 공해 및 생활환경 피해조사 1) 주민설명회 -일시 : 2022.01.06.(목) 오후3~6시 -장소 : 전남도립미술관2층 대강당(광양읍 순광로 660) -참석 : 광양,여수,하동,남해 지역주민(60명/실내 참석인원 제한 준수) -내용 : '공해2021' 다큐멘터리 상영(포항MBC) 제철소 주변지역의 공해와 환경 불평등(김민정 박사/성공회대학교) 공해피해의 법적 구제방안(박지혜,우경선,최재홍 변호사/녹색법률센터) 익산 장점마을 집단 환경성암 피해보상 사례(손문선 대표/좋은정치시민넷) ※참고사항: 여수온동마을 통장 및 묘조지역발전협의회, 청년회 설명회 개최 반대(01.01~02), 설명회 장소변경 요구(1.3), 여수묘도지역발전협의회&통장단 간담회(박발진 공동대표와 참여) ※결과 : 주민설명회 일정은 예정대로, 장소는 여수온동마을회관→전남도립미술관 2층 대강당 2) 생활환경피해 조사 홍보 및 대상자 모집 -모집기간 : 2022.01. 10.~ 2022. 01.20(목) -대상자심의 : 2022. 01. 21. ~ 01. 25.(화) -심의방법 : 서류심사 및 전화(제철소 인근 지역 우선으로 대상 선정) -대상자선정 : 2022.1.26.(수) 33명 조사대상장 선정 개별안내 3) 연구계획 및 세부추진 계획 -조사지역 : 제철소 주변지역(광양시,포항시,여수묘도,하동,남해) -연구계획 : 2022. 1월 중 -조사기간 : 2022. 2~3월 -조사방법 : 설문 및 심층 면담, 녹취기록, 분석

-조사결과 보고서 도출 : 2022. 9월
-결과발표 : 2022. 12월 중

○ 제철소 주변지역 공해 및 생활환경 피해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22.12.14.(수)11시
-장소 : 광양시청 3층 열린홍보방
-참석 : 전남녹색연합,여수온동마을,남해대기오염대책위,하동자치21
-언론보도 현황 : KBS, MBC, LG방송 외 광양뉴스, 남도일보, 연합뉴스, 매일신문 외 다수)

○ 제철소 및 국가산단 주변지역 주민권익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 포럼
-일시 : 2022.12.22.(목)14~17시
-장소 : 광양시 중마동 주민자치센터4층 다목적강당
-참여 : 광양,여수,하동,남해 주민 외 광양시의회 시의원(100명)
-공동주최 : 광양시의회&전남녹색연합
-내용

프로그램		
14:00 ~14:20	개회	개회사 : 현능스님 전남녹색연합 상임대표 환영사 : 백성호 광양시의회 부의장 축 사 : 서동용 국회의원 윤미향 국회의원
	사회	박수완 전남녹색연합 사무처장
1부 : 주제 발제와 토론(좌장:서영배 광양시의회 의장)		
~ 15:10	발제1 (25분)	제철소 주변지역 공해 및 생활환경 피해 실태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이소영&양라윤
	발제2 (25분)	광양제철산단 주변지역 주민건강 실태 -노동환경연구소 직업성환경성질환센터장 백도명
15:20		쉬는 시간
~ 17:00	토론1	국가산단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의 필요성 -국회의원 윤미향 의원실 송봉준 보좌관
	토론2	제철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환경 및 생활사 -온동마을 이주대책위 위원장 방재원
	토론3	석탄발전소 주변 지역주민들의 건강피해 및 공동체 위협 -녹색당기후정의위원회 청년기후긴급행동 이은호 활동가
	토론4	주민권익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 -광양제철소 환경자원그룹 김주호
	자유토론 질의/응답	

<table>
<tr><td>세부활동
및 평가</td><td>- 포스코 광양제철소 환경오염 저감방안과 지역주민 공해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 마련 기초자료
- 심각한 환경오염물질에 노출된 제철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심층 조사결과 자연환경 훼손, 신체 및 정서적 피해, 경제적 피해 및 일상 생활에 피해 및 지역 공동체의 변화 및 지역사회 변화 등을 사회적 공감대 확대
- 제철소 및 국가산단 등 환경오염물질 다량 배출 지역 사회변화를 살펴보고 환경문제에 노출되어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 실태와 피해를 구체적으로 조사했다는 평가</td></tr>
<tr><td rowspan="2">활동사진</td><td>
</td></tr>
<tr><td>
</td></tr>
</table>

Ⅲ. 사업 활동보고

녹색교육 운동

사 업 명	녹색교육연구회&녹색시민교사
사업목표	○ 녹색시민교사, 학교교사, 생태·환경전문가가 함께하는 생태환경교육 분야 학습공동체 만들기 ○ 광양만권의 마을교육과정, 생태환경, 기후위기, 생태전환적인 삶으로 성장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주체들의 만남을 이어가기 위함
사업내용	○ 녹색교육연구회 -1월 : 자원순환 빗물학교 와雨!(1.17) -2월 : 비전력놀이, 오래된 미래 챕터1 함께 읽기(2.7) 미래를 여는 직업 GREEN JOB! 오래된 미래 챕터2 토의(2.14) 기후위기, 오래된 미래 챕터3 토의(2.21) -3월 : 녹색시민교사 정기모임 '생태전환교육의 이해' -4월 : 녹색시민교사 정기모임(자람생태학교 역할4.14) 숲샘마을학교 프로그램 소개(4.19/사라실예술촌) 녹색연구회 워크샵 ' 생태적 삶으로 전환'(박병관/광양희망도서관/4.20) -5월 : 녹색시민교사 정기모임(5.13) -6월 : 녹색시민교사 정기모임(6.10) -7월 : 녹색시민교사 정기모임(7.7) 비전력 놀이 한마당, 상반기 교육 돌아보기) 녹색시민교사 하계 수련회(7.22/옥룡계곡) -10월 : 녹색시민교사 정기모임(상리공생 준비회의,비전력놀이 준비)) -11월 : 녹색시민교사 정기모임(동아리 소모임 임원선출/회장:양재희,총무:정윤경) -12월 : 녹색시민교사 정기모임(12.8) ○ 지구아이 비전력놀이 활동가 교육 - 1차 : 생태전환사회 비전력놀이(4.22/박수완) - 2차 : 성대골에너지 자립마을 비전력놀이(4.29/그린씨) - 3차 : 그림책을 활용한 생태놀이(5.13/박신영) - 4차 : 점,선,면 예술놀이(5.20/그린씨) - 5차 : 비전력 놀이 실제(5.28/박수완) - 6차 : 녹색시민교사 자연공부(완도식물원 체험활동/13명 참여) ○ 생태텃밭 교육농 녹색시민교사 역량강화 - 교육기간 : 2022.7.12.~8.23 - 대상 : 녹색시민교사, 비전력놀이 활동가

<table>
<tr><td></td><td>- 내용 :

<table>
<tr><th>일정</th><th>내용</th><th>비고</th></tr>
<tr><td>7.12(화)
10~12시</td><td>생태텃밭 교육농 활동사례</td><td>넷스트젠 이동근/실내</td></tr>
<tr><td>7.27(수)
10~12시</td><td>씨앗에서 씨앗으로</td><td>넥스트젠 이동근/실내</td></tr>
<tr><td>8.02(화)
10~12시</td><td>흙, 순환, 기후위기/텃밭만들기</td><td>넥스트젠/실내,야외</td></tr>
<tr><td>8.09(화)
9~12시</td><td>생태전환, 생태감수성</td><td>넷스트젠/실내,야외</td></tr>
<tr><td>8.16(화)
9~12시</td><td>텃밭작물 이해하기</td><td>넷스트젠/야외</td></tr>
<tr><td>8.23(화)
9~12시</td><td>텃밭작물의 다양한 활용</td><td>넷스트젠/야외</td></tr>
</table>

○ 녹색시민교사 겨울방학 역량교육
- 교육기간 : 2022.12.19.~20
- 대상 : 녹색시민교사, 비전력놀이 활동가
- 내용 : 1차 동지와 기후환경교육(정청라 작가)
2차 숲놀이(광주숲해설가협회/이제선)</td></tr>
<tr><td>활동평가</td><td>-학교와 생태·환경전문가, 녹색시민교사 간 학습공동체로 서로가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고자 함.
-홍보와 학교 교사 참여가 저조하여 생태환경교육이 단순한 교육서비스로 전락하지 않도록 2023년은 학교와 담임교사와의 소통과 이해과정이 필요함.
-자립과 순환의 가치를 존중하는 생태전환교육운동으로 역량을 키워가야 함.</td></tr>
<tr><td>활동사진</td><td>
</td></tr>
</table>

<table>
<tr><td></td><td>숲샘마을학교</td></tr>
<tr><td>사업목표</td><td>○ 지역의 어린이들과 주민들에게 학교숲과 마을숲의 가치와 소중함을 느끼며 녹색가치를 존중하는 생태시민으로 성장
○ 지역의 다양한 숲 생명을 만나며 생태계의 순환 과정을 이해
○ 기후변화 이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며 교사와 마을교사가 학습공동체로서 소통하며 학교 교육과정에 생태전환교육 지원</td></tr>
<tr><td>사업내용</td><td>◯ 2022년 숲샘마을학교 공모사업 신청(광양교육지원청/1.19)
- 사업기간 : 2022.02~12월
- 사 업 비 : 15,000,000원(전라남도 광양교육지원청 마을학교)
- 대 상 : 광양읍 초등학교(동초등학교,서초등학교,북초등학교,덕례초등학교 학생)
- 주요내용 : 광양읍 초등학교 대상 생태놀이를 통해 학교숲 가치알기, 인동숲과 유당공원 등 마을숲 체험, 생물다양성 조사, 서산과 서천의 생태를 만나며 자연감수성을 회복하고, 지역의 다양한 생태환경을 탐구하면서 생태순환사회 순환과 자립의 가치관을 키우는 녹색교육사업

◯ 숲샘마을학교 집담회
-일정/장소: 2022.3.16.(수)/광양동초등학교
-대상 : 광양동초등학교 교사(14명), 녹색시민교사(8명)
-내용 : 연간프로그램 선정, 학년별 교사&녹색시민교사 면담
-2022 활동계획
<table><tr><th>학교</th><th>대상</th><th>운영기간</th><th>주제</th></tr><tr><td rowspan="2">광양동
초등학교</td><td>1~2학년</td><td>4/15 6/10,
9/16, 11/4</td><td>학교숲과 마을숲 생태놀이
생물다양성(식물,곤충)</td></tr><tr><td>3~6학년</td><td>4/29, 6/24,
9/30, 11/18</td><td>학교숲 조사(나무조사)
마을숲(인동숲과 유당공원)</td></tr><tr><td>광양서
초등학교</td><td>1~2학년</td><td>4/26, 5/31,
9/29, 10/28</td><td>학교숲과 마을숲 생태놀이
생물다양성(숲친맺기)</td></tr><tr><td rowspan="2">광양북
초등학교</td><td>3학년</td><td>4/22, 5/13, 5/27
9/2, 9/23, 10/7</td><td>생태순환 텃밭교육</td></tr><tr><td>4학년</td><td>5/13, 5/20,
9/2, 9/23</td><td>학교숲과 마을숲 탐사
곤충은 내 친구</td></tr><tr><td>덕례
초등학교</td><td>3학년</td><td>4/27, 4/28, 6/7,
6/8, 10/18, 10/19,
11/15, 11/16</td><td>서산숲길 탐사
생물다양성(식물,곤충)
기후변화 자원순환 캠페인</td></tr></table>
◯ 숲샘마을학교 평가회의
-일정 : 2022.12.15.(목)
-장소 : 광양동초등학교
-내용 : 2022 숲샘마을학교 활동평가(설문결과) 공유, 활동영상 소개, 소감 나누기</td></tr>
</table>

2023년 활동 방향 논의

○ 숲샘마을학교 생태환경교육 리플렛 제작

프로그램명	주제	세부활동
숲으로 풍덩	학교숲	학교숲 숲친되기, 자연을 바라보는 마음 키우기, 생물다양성 조사, 자연놀이를 통해 생명과 친구되기
	마을숲	인동숲, 유당공원, 솔밭섬, 서천과 서산, 백운산 등 지역의 마을숲 만나기
기후위기 생태전환교육	자립과 생태순환	오일장 캠페인, 빗물학교 와雨! 녹색텃밭교육, 쓰담캠페인, 용기내 캠페인, 에코브릭 프로젝트, GREEN JOB!, 지구아이 비전력놀이
사계절 온마을 생태문화	숲길 걷기	서산 둘레길 걷기 백운산 둘레길 걷기 서천 물길따라 걷기
녹색교육연구회	채식 한 끼	우리동네 자투리 공간 텃밭만들기, 채식식단 프로그램 개발 몸살림 건강 식습관 교육
	생태교육 작당	역량교육, 생태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 숲샘마을학교 교육지원 안내 리플렛 제작

○ 마을학교 성과공유회
-일정 : 2022.12.20.(화)16:30~18시
-장소 : 골약중학교

활동평가

<table>
<tr><td>사 업 명</td><td>생태전환교육 생태시민 키우기</td></tr>
<tr><td>사업목표</td><td>기후위기를 초래한 무한성장과 경쟁을 부추키는 학교교육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좋은삶에 대한 가치, 자연을 자원으로 바라보지 않고 생명으로 바라보는 생각 키우기 생태전환, 생태시민사회로 나아가기 위함</td></tr>
<tr><td>사업내용</td><td>◯ 광양서초등학교 ‘생태전환교육의 이해’ 집담회
-일시/장소 : 2022.2.18.(월)11~12시/서초등학교 다목적실
-대상 : 전학년(1-6학년)
-내용 : 생태전환교육 이해, 학년별 교사와 녹색시민교사 면담, 년간 생태환경교육 주제 정하기

◯ 옥룡북초등학교 생태환경교육 집담회
-일시/장소 : 2021.2.18.(월)14:00~16:00 /과학실
-대상 : 전학년(1-6학년)
-내용 : 생태전환교육의 방향과 철학 정하기, 학년별 교사와 녹색시민교사 면담, 년간 생태전환교육 주제 정하기
-2022 학년별 생태환경교육
<table>
<tr><th>일정</th><th>주제</th><th>세부내용</th></tr>
<tr><td colspan="3">1-2학년(녹색교사:강애란,류하영)</td></tr>
<tr><td>3월</td><td>파릇 파릇 봄</td><td>학교 숲과 마을 숲에서 봄 만나기</td></tr>
<tr><td>4월</td><td>우리 마을 숲 산책(추동섬)</td><td>추동섬의 봄, 추동섬의 수서생물</td></tr>
<tr><td>5월</td><td>서울대 남부학술립 숲탐방</td><td>백운산-숲길 걷기, 다양한 생명 만나기</td></tr>
<tr><td>6월</td><td>논습지 생물 만나요.</td><td>논길 걷기, 논습지 생물 채집과 관찰</td></tr>
<tr><td>9월</td><td>우리 마을 가을 숲</td><td>추동섬의 가을 느끼기, 논의 변화</td></tr>
<tr><td>10월</td><td>나무와 숲밧줄놀이</td><td>솔밭섬 에코티어링, 숲밧줄놀이</td></tr>
<tr><td>11월</td><td>백운산 숲길</td><td>백운산의 가을 오감 느끼기</td></tr>
<tr><td>12월</td><td>솔밭섬의 겨울</td><td>겨울을 준비하는 동·식물 만나기</td></tr>
<tr><td colspan="3">3-4학년(녹색교사:유지영,이미은)</td></tr>
<tr><td>3월</td><td>학교 숲</td><td>학교 숲 탐험, 학교 숲과 숲친 맺기</td></tr>
<tr><td>4월</td><td>하천섬의 식물다양성 Ⅰ</td><td>식물 조사, 한 해 살이와 여러해 살이</td></tr>
<tr><td>5월</td><td>하천섬의 생물다양성Ⅱ</td><td>곤충, 조류, 양서류, 포유류 조사</td></tr>
<tr><td>6월</td><td>빗물학교 와 雨!</td><td>물의 순환, 빗물감수성, 빗물저금통</td></tr>
<tr><td>9월</td><td>오일장 환경캠페인</td><td>비닐 대신 파우치, 오일장캠페인</td></tr>
<tr><td>10월</td><td>밧줄과 에코티어링</td><td>밧줄놀이, 에코티어링 미션 수행</td></tr>
<tr><td>11월</td><td>백운산 숲길</td><td>백운산 둘레길 걷기, 가을 열매 만나기</td></tr>
<tr><td>12월</td><td>기후변화 환경이야기</td><td>지구온난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td></tr>
<tr><td colspan="3">5학년(녹색교사:김미숙)</td></tr>
<tr><td>3월</td><td>우리 마을의 특별한 숲</td><td>옥룡사지 탐방, 양서류 서식지 관찰</td></tr>
<tr><td>4월</td><td>우리 마을 산사 생태체험</td><td>중흥사 만나기, 야생동물 흔적 찾기</td></tr>
<tr><td>5월</td><td>옥룡 동천 생태 만나기</td><td>하천의 기능, 사천에 비치는 보의 영향</td></tr>
<tr><td>6월</td><td>우리 마을의 아름다운 숲</td><td>백운산 둘레길 걷기, 백운산 생태계</td></tr>
</table></td></tr>
</table>

9월	세계의 나무를 만나는 숲	다양한 나무 만나기, 나무이야기
10월	숲에서 나무와 함께 놀기	숲 밧줄 놀이, 에코티어링
12월	마을 클린 하이킹	마을 걸으며 쓰레기 수거, 겨울을 준비하는 숲
12월	생태계의 자원순환	절기 야이갸, 자원순환 생태 놀이
6학년(녹색교사:이경아)		
3월	우리 지역의 생태문화Ⅰ(동백숲)	옥룡사지-숲길, 옛터 흔적, 식물만나기
4월	우리 지역의 생태문화Ⅱ(중흥사)	중흥사-산사체험, 글꽃숲
5월	자원순환 빗물교육	물의 순환, 빗물감수성, 산성도 실험
6월	자원순환 빗물교육-빗물저금통	빗물 이야기, 빗물저금통 만들기, 빗물놀이
9월	백운산 숲 탐방	둘레길 걷기, 식물의 진화, 공생
10월	나무와 숲 밧줄 놀이	나무와 교감, 숲 밧줄 놀이, 에코티어링
11월	기후변화 이야기	지구온난화, 온실가스 줄이는 방법 토론
12월	순환적인 소비, 자원순환	야채주머니 만들기

○ 옥곡초등학교 생태환경교육 집담회

-일시/장소 : 2021.2.18.(월)10:00~12:00 / 소통공간

-대상 : 전학년(1-6학년)

-내용 : 학년별 교사와 면담, 생태교육 프로그램 일정 및 내용 정하기

-2022 학년별 생태환경교육

일정	주제	세부내용
1학년(녹색교사:류하영)		
4.07	숲 탐! 탐!	우리 학교 숲 탐색 우리 학교 숲 생태 구조를 알고 느끼기 숲 활동을 통한 탄소 중립의 의미 이해하고 실천 방법 찾기
4.28	오! 씨앗!	다양한 씨앗 관찰하고 비교하기 씨앗이나 모종 심는 방법 알아보고 심기 자연물을 통한 봄에 할 수 있는 놀이 찾기
5.12	어디서 이 향기가 왔을까!	우리 학교 숲과 주변을 둘러보며 봄에 피는 식물 관찰 봄이 되어 볼수 있는 것과 겨울에서 봄으로 바뀐 것 찾기
5.26	누가 살고 있을까?	우리 학교 숲에 사는 다양한 동물과 식물을 관찰 우리 학교 숲에 사는 동식물을 소개하기
9.22	나무도 나이가 있어요!	학교 숲에서 찾아요. 학교 숲을 통해 자연과 소통하고 공감하기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 나를 찾기
10.20	가을은 미술 선생님!	가을 산이나 들 풍경 살피며 가을의 특징 살펴보기 가을에 볼 수 있는 열매, 나뭇잎 모양의 특징 관찰
11.30	방구뽕! 탄소후~	산림 탄소 중림에 대해 알기 실생활 탄소 배출 줄이는 방법 알기 나무 심기 가꾸기에 관심 갖기
2학년(녹색교사:김미숙)		
3.28	학교 숲	교내 나무들을 살펴보며 나무의 구조와 생태적 특징을 알아보기

4.11	향기로운 봄꽃	봄에 피는 여러 종류의 특징을 살펴보고 꽃의 역할과 특징을 이해하기
5.16	흙 생태	숲을 만드는 흙과 지렁이의 역할을 이해하기
6.13	변신하는 나비와 곤충	계절에 따라 나타나는 곤충을 생각해보고 곤충의 한실이와 특징 이해하기
10.24	열매와 씨앗	크고 작은 여러 종류의 열매와 씨앗의 특징과 역할을 이해한다.
11.07	변화하는 숲	단풍이 든 나뭇잎의 색과 모양의 특징을 알아보기
12.05	겨울숲과 새생명	겨울눈으로 겨울나기를 하는 식물의 특징을 이해하고 겨울잠을 자지 않는 새들의 생태를 알아보기
3학년(녹색교사:유지영)		
3.23	학교숲 알아보기	학교숲에 있는 식물 관찰하고 별명 붙여보기
4.13	마을 숲 알아보기	옥곡에 있는 자연환경 관찰하고 우리마을 숲의 특징 알아보기 우리동네 플로킹(일상에서도 실천하기)
5.19	일회용품 얼마나 사용하고 있나요?	옥곡 오일장에서 물건을 사면서 비닐봉지, 일회용 플라스틱 이용 빈도 알아보기 일회용품이 환경을 파괴함을 배우기
6.15	빗물학교와 업싸이클	재활용품을 이용하여 빗물 저금통을 만들고 자원순환과 업사이클에 대해 배워보기
4학년(녹색교사:이미은)		
3.31	학교숲 숲친되기	학교 숲 산책하기 봄꽃, 로제트 식물 관찰하기
4.21	학교 숲의 나무	학교 숲의 침엽수, 활엽수 알아보기 나뭇가지, 잎 들여다보고 표현하기
5.19	식물의 한 살이	식물들의 변화 찾기 식물들의 변화 표현하기
9.22	식물의 생활	초본식물, 목본식물 관찰하기(교외활동) 산, 들, 강, 호수의 식물 관찰하기
10.20	비와 식물	빗물놀이 빗물저금통 만들기
11.17	학교 숲의 가을	식물의 열매와 낙엽 관찰하고 표현하기 겨울을 준비하는 식물의 변화 관찰
5학년(녹색교사:이정빈)		
4.05	텃밭 디자인	텃밭 식물 심기 텃밭 식물 재배 방법 알아보기
4.18	학교 숲	숲 산책하며 자연이름 짓기 학교숲에 사는 식물 만나기
5.16	우리지역 하천생태	광양 서천 물길따라 쓰담걷기 우리지역의 하천 생태 살펴보기
5.30	학교 숲	학교 숲 탐사 식물 이름 알아보기 학교숲 숲친 맺기, 숲친 나무조사
6.07	학교숲 나무와 나	숲친 이름표 만들어 달아주기

		나무마다 다른 이름의 의미 이해하기
6.27	숲 영상	학교 숲 배경으로 사진 촬영할 장소 탐색 친구들과 영상 공유하기
10.24	자연은 아름다워	학교 숲에서 다양한 자연 재료 구하기 자연 재료로 작품 만들고 전시하기
11.21	생물다양성	생물다양성 이해 '숲에는 생명이' 캠페인 자료 만들기
6학년(녹색교사:이경아)		
3.22	생태전환교육 의미 이해	교실 쓰레기 분류 방법 알기 에코브릭 프로젝트
4.12	목본과 초본식물	학교 숲 식물의 구조와 생태이해
4.19	탄소를 줄이는 나무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우리의 역할과 숲의 중요성 탐구
5.24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옥곡시장에서 사용하는 비닐량 조사 및 '줍깅' 활동
9.20	플라스틱	플라스틱과 환경문제 폐현수막을 활용하여 장바구니 만드는 방법 이해
10.4	자원순환 생태순환 소비	옥곡시장에서 장보기 활동 일회용품 사용량 줄이기 캠페인 활동
11.22	숲 드로잉	학교숲에서 하는 미술놀이 낙엽과 나뭇가지를 활용한 작품 만들기
12.13	일회용품 사용조사	에코브릭으로 생활용품 만들기

○ 옥룡초등학교 생태환경교육

-활동기간 : 2022.3~12

-대상 : 전학년(1-6학년)

-내용 : 2022 학년별 생태환경교육

일정	주제	세부내용
1학년(녹색교사:서영미)		
4.04	우리마을의 나무	우리마을 나무를 만나요
4.11	우리마을의 나무	나무열매와 씨앗
4.25	우리마을의 나무	나무에 피는 꽃
5.09	우리마을의 나무	나무에 사는 동물들(곤충)
5.23	우리마을의 나무	나무의 성장(나이테)
6.13	습지	여름철 논
6.27	자원순환 생태순환	빗물저금통
7.04	우리마을의 하천	하천에 생물
2학년(녹색교사:이미은)		
4.04	솔밭섬의 봄을 찾아라!	솔밭섬의 봄의 모습을 찾아보기 솔밭섬의 봄나물(로제트) 찾아보기 기후위기에 솔밭섬의 동식물이 주는 이로움

		알기
4.18	옥룡사지를 둘러보아요	산에 봄꽃 만나보기 동백꽃 관찰하기 오래된 동백나무를 찾아라
5.10	세계의 봄을 찾아서	세계의 나무들이 있는 숲 나무들도 나이를 먹어요 나무도 이름이 있어요
5.16	나무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나무가 달라졌어요! 나무에게 필요한 것들 알아보기 나무를 좋아하는 동물이야기
6.27	논습지를 알아요	논에 사는 다양한 생물 관찰하기 논습지에 사는 동식물들의 모습을 관찰하기 논이 주는 이로움
6.21	비 오는 날	즐거운 비 맞이 비오는 날 볼 수 있는 내 친구 빗물 저금통 빗물 저금통으로 두 가지 해결은?
7.05	시원한 계곡으로	첨벙 첨벙 물놀이로 자연 느끼기 계곡에는 누가 살까? 물가에서 사는 친구들 특징 알아보기 안전수칙 알아보기
3학년(녹색교사:이경아)		
4.08	플라스틱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 에코브릭	지구온난화의 원인과 플라스틱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알기 에코브릭 만들기
5.10	쓰담 캠페인	학교 숲, 마을 숲 쓰레기 줍기 쓰레기를 분류해요 쓰레기의 상황, 문제점을 알고 대응방법 알기 느낀점을 알리는 캠페인
6.7	비닐봉지와 지구	기후위기시대에 비닐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 비닐이 만들어진 배경 비닐을 줄일수 있는 방법 생각해보기 보자기로 장바구니 만들기
7.12	와~빗물이다	빗물이야기, 물의 순환, 빗물저금통, 빗물놀이
4학년(녹색교사:이미은)		
4.12	숲 이야기 봄과 식물	봄에 피는 꽃을 알아요 꽃을 좋아하는 친구들 동식물이 주는 이로움을 알아요 생태놀이:비전력놀이
6.20	재생에너지, 물의 순환	다양한 빗물, 물의 순환 빗물저금통, 빗물놀이
5학년(녹색교사:박수완)		
5월	우리지역의	광양만권 대기환경의 영향

	환경문제	
6월	생물다양성	우리 주변의 야생동물들 두꺼비 산란지를 찾아서
7월	지역생태문화	백운산 완주
6학년(녹색교사:박수완)		
10월	생물다양성	우리 주변의 야생동물
11월	생태전환& 생태시민	기후변화의 원인과 영향 탈탄소 마을 상상토론

○ 찾아가는 생태환경교육

-활동기간 : 2022.3~12월

-대상 : 전라남도 유·초·중 생태환경교육

-월별 생태환경교육 현황

일 정	교육 주제	대상/학교
4.4(월)~ 4.15(금)	학교 숲과 마을숲	다압초1~6학년 진상초병설유치원3~5세
	우리 마을의 나무2 텃밭교육/학교 숲/마을 숲	여수안심초병3~5세 중진초병설유치원 3~5세 봉강초1~2학년
4.18(월)~ 4.29(금)	학교 숲 마을 숲 생물다양성 텃밭교육 자원순환 생태순환	중동초1학년 여수여천초병설 3~5세 중마초1학년 왕지초병설 3~5세 봉강초 1~2학년
	마을 숲 학교 숲/동천하천섬 생태/텃밭교육	중마초1학년 중동초1~2학년 진상초1~2학년
5.2(월)~ 5.20(금)	학교 숲 기후변화 에코브릭	구례중동초 1~6학년 골약초 6학년
	생물다양성, 두꺼비 산란지 모니터링, 새끼두꺼비 조사 마을 숲/학교 숲/오일장	다압초 1~6학년 광양북초 4학년
5.23(월)~ 5.30(월)	서산 생태체험 우리동네 마을숲 오일장 캠페인	덕례초 5학년/왕지초병설 구례중동초1~6학년 백운초 1학년 광양북초4학년
	학교 숲 마을 숲 우리 지역의 생태문화 비전력놀이	덕례초6학년 중마초 2학년 광양북초 2학년

일 정	교육 주제	대상/학교
6.6(월)~ 6.17(금)	학교 숲/비전력놀이/ 마을 숲/자원순환	덕례초 3학년/옥룡초 3학년
	마을숲과 오일장 윤리적 소비 학교숲 숲놀이	구례중동초 1~6학년 광양북초 4학년 진상초병설유치원
6.20(월)~ 6.27(월)	기후위기 대응 마을 숲 빗물학교 와 雨! 학교 숲	마동초 5학년 왕지초병설 3~5세/ 중동초 병설 3~5세/ 주암초1~6학년
	빗물학교 와 雨! 학교 숲 마을 숲 논습지	동명초 병설3~5세 마동초 5학년 구례중동초1~6학년
8.31(수) 9.7(수) 9.14(수)	빗물학교 와 雨! 1차시 빗물학교 와 雨! 2차시 기후위기	용강초 5학년
9.12(월)~ 9.23(금)	학교숲, 마을숲 지속가능한 윤리적 소비 텃밭교육 플라스틱 환경문제 숲놀이	여수종고병설(3~5세) 다압초(1~6학년) 중진초병설(3~5세) 중동초병설(3~5세)
9.26(월)~ 9.30(금)	마을 숲 백운산 숲탐방 생물다양성	왕지병설(3~5세) 진상초병설(4~6세) 광양동초(3~6학년)
10.3(월)~ 10.14(금)	생물다양성 마을숲 자연놀이 마을숲 에코티어링	다압초(1~6학년) 중동초병설(3~5세) 용강초 2학년, 중진초 4학년
10.17(월) ~ 10.31(월)	마을숲 에코티어링 빗물학교, 생물다양성, 숲으로 풍덩, 그린잡	덕례초 3학년 여수종고초병설(3-5세) 진상초병설유(4-5세) 왕지초병설유(3~5세) 백운초1학년,왕지초병설유 중진초4학년
11.1(화)~ 11.11(금)	학교숲과 마을숲 밧줄놀이 자원수환 빗물학교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비전력놀이	덕례초 2, 4, 5, 6학년 전주 용소중 밧줄놀이 중진초 2학년 칠성초 4학년 왕지초 병설 3, 4세, 5세 주암초 전교생1-6학년 덕례초 병설유치원 3-5세
11.14(월) ~ 11.30(수)	기후위기 생태전환교육, 학교숲과 마을숲, 빗물교육, 자원순환 재활옹, 둘레길 걷기, 생물다양성, 쓰레기 제로의 날, 기후변화	중진초병설유 3-5세 덕례초 3, 5학년 덕례초병설유 3-5세 광양서초 4학년 마로초 2학년 진월초 5-6학년

<table>
<tr><td></td><td>
<table>
<tr><th>일 정</th><th>교육 주제</th><th>대상/학교</th></tr>
<tr><td>12.7(목)~
12.13(수)</td><td>마을숲 에코티어링
자원순환 빗물교육
에코브릭 생태용품</td><td>고흥포두초 4-6학년</td></tr>
</table>
</td></tr>
<tr><td>활동평가</td><td>○ 생태환경교육 간담회 추진 학교와는 설문 평가 진행하였으나 그 밖에 학교는 1,2회성 생태환경교육으로 자체 평가로는 아쉬움이 있음
○ 생태전환교육의 의미를 돌아보며 일회성 체험교육이 아닌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생태시민으로 생각을 키워나갈 수 있는 녹색교육 연구 및 지원이 필요함</td></tr>
<tr><td>활동사진</td><td>
 </td></tr>
<tr><td>사 업 명</td><td>기후위기 대응 생태전환사회 강연&토론&간담회</td></tr>
<tr><td>사업목표</td><td>탈탄소 사회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을 실천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생태시민양성을 위해 녹색시민교사 양성</td></tr>
<tr><td>사업내용</td><td>○ 광양만권 환경현안 및 생태전환의 의미 강연
- 일정 : 2022. 5.13(금)19:30</td></tr>
</table>

	- 대상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광주전남지부동부지회 - 성과 : 전남녹색연합 활동홍보,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소통, 회원확대 ○ 왕지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 연수 - 일정 : 2022. 5.24(화)14시 - 내용 :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전환교육의 의미 - 성과 : 전남녹색연합 활동홍보,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소통, 회원확대 및 나눔장터 수익금기부 ○ 나주빛누리유치원 교사 연수 - 일정 : 2022. 5.31(화)16~18시 - 내용 :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전환교육의 방향 - 성과 : 전남녹색연합 활동홍보, 전남 서부지역사회 구성원들과 소통, 회원확대 ○ 강진 성요셉상호문화고등학교 생태전환교육 간담회 - 일정 : 2022. 6.10(화)15시 - 내용 :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전환교육의 방향 - 성과 : 전남녹색연합 활동홍보, 전남 서부지역사회 구성원들과 소통 ○ 순천KBS라디오 상담실 방송 출연(박수완 사무처장) - 일정 : 2022. 3~11월 - 내용 : 3월, 전남녹색연합 활동과 두꺼비 이야기 5월, 기후변화와 숲생태교육 7월, 숲이주는 이로운 것들 9월, 도심숲, 비오톱과 가로수 이야기 11월, 겨울을 준비하는 숲 - 성과 : 전남녹색연합 활동홍보, 숲생태이해, 기후변화 원인과 영향 ○ 전남기후대응 생태환경교육 교육지원단 워크샵 - 일정 : 2022. 8.11~12일 - 주최/장소 : 전라남도 교육청/보성다비치호텔 - 내용 : 기후위기 대응 생태환경교육의 방향과 활동사례 공유 ○ 벌교여자중학교 기후위기와 생태전환교육 초청강연 - 일정 : 2022. 10.21(금)10:30시 - 장소 : 벌교여자중학교 도서실 - 성과 :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감축요구 등을 기성세대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벌교여자중학교 청소년들과 소통하며, 기후위기를 야기시키고

	있는 자본과 성장, 개발, 무한 소비를 부추키고 있는 사회현상 등을 탐구하며 비판적 사고와 민주적, 생태시민적인 시각으로 더 나은 삶에 대한 논의를 함 ◯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토론회 패널참여(박수완 사무처장) - 일정 : 2022. 11. 24(목)14~16시 - 장소 : 순천시 도서관 - 내용 : 미세먼지와 기후위기 발제(순천대학교 박성훈 교수) - 주최 : 남도일보
활동평가	-전남 동부지역 및 서부지역 지역사회 시민들과의 네트워크 -전남녹색연합의 활동 홍보 및 기부금 수익, 회원확대 성과 -녹색연합의 4대 강령 활동을 전남도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확대해 나감
활동사진	

Ⅲ. 사업 활동보고

회원사업

<table>
<tr><td>사 업 명</td><td>자람생태학교 ‘우리동네 숲으로 풍덩’</td></tr>
<tr><td>사업목표</td><td>전남녹색연합 회원자녀 대상으로 어린이들에게 자연속에서 생명을 만나고 다양한 숲체험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며, 생태적 감수성 회복, 생명존중·비폭력 평화를 사랑하는 녹색회원가족 만들기</td></tr>
<tr><td>사업내용</td><td>-모집인원 : 45명 모집
-운영방법 : 매월 세 번째 토요일 오전10~13시까지 운영
-운영조직 : 녹색시민교사 자원활동(담당: 박미선)
-세부운영
<table>
<tr><td>3.19
(토)</td><td>○ 마을숲 만들기 ‘희망나무 심기’
-광양읍 인서2공원/금목서 5그루 심기</td><td>광양읍
(30명)</td></tr>
<tr><td>4.16
(토)</td><td>○ 우리 두꺼비 만나러 가요!
-두꺼비 산란지 돌아보기, 로드킬 알아보기
-비전력놀이 활동</td><td>진상면
백학공원
(64명)</td></tr>
<tr><td>5.21
(토)</td><td>○ 녹색순환 나눔장터
-나눔장터 활동,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수익금 청소년 기후행동기부(387,600원), 희망나무 돌보기</td><td>인동숲
(25명)</td></tr>
<tr><td>6.18
(토)</td><td>○ 우리동네 숲으로 풍덩!
-광양읍, 중마동, 순천 우리동네 숲체험 활동</td><td>백운산
치유센터</td></tr>
<tr><td>7.16
(토)</td><td>○ 우리곁에 생명들, 지리산 반달가슴공 만나요!
-지리산종복원센터,반달가슴곰 복원활동소개
-화엄사 옛길 걷기 활동</td><td>지리산종
복원센터
(45명)</td></tr>
<tr><td>9.17
(토)</td><td>○ 서산둘레길 걷기
-자연에 한 발 더 가까이 숲에 들기, 자연간식</td><td>광양읍
서산
(32명)</td></tr>
<tr><td>10.15
(토)</td><td>○ 나무와 교감, 숲밧줄놀이
-매듭법 알기, 밧줄놀이 구조 설치, 비전력놀이</td><td>순천
율산공원
(22명)</td></tr>
<tr><td>11.19
(토)</td><td>○ 가족과 함께 백운산 숲길 걷기
-겨울을 준비하는 숲, 숲 생태계 이해</td><td>백운산둘
레길
(23명)</td></tr>
</table>
</td></tr>
<tr><td>활동평가</td><td>-녹색연합 회원과 소통, 회원 자녀들에게 숲과 생명의 가치를 느끼고자 매월 정기적으로 진행
-자람생태학교 참여를 위해 회원가입을 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자람생태학교 참여 외 회원사업 참여도 확대되고 있음
-코로나19로 인해 대규모 활동 보다는 동네별로 순천,광양읍,중마동으로 나눠 진행함으로 소규모 활동으로 방향 바꿔 훨씬 자람친구들과 소통하는데 긍정적 평가.</td></tr>
</table>

활동사진	
사 업 명	한 달에 한 번 자연에 들다 '들내지기'
사업목표	전남녹색연합회원과의 만남, 생태시민들의 생태감수성 공감대 확대를 위해 매월 첫 번째 토요일 회원과 자연에 들어 걷기 활동
활동내용	○ 3월 진상면 감꽃길 걷기(3.5/회원13명 참여) ○ 4월 옥룡면 백계산 걷기 (4.2/회원14명 참여) ○ 5월 구례 화엄사 치유의 숲길 걷기(5.7/회원11명 참여) ○ 6월 순천 앵무산 사전답사(5.23/곽동민,박수완,박미선,유지영) -참가신청 저조로 취소 ○ 7월 지리산 뱀사골 둘레길 걷기(7.2/회원12명 참여) ○ 9월 백운산 치유의 숲길 걷기&치유센터 체험(9.3/회원16명 참여) ○ 10월 지리산 설산습지 숲길 걷기(10.1/회원23명 참여) ○ 11월 컵줍깅 캠페인/광양읍, 중마사랑병원 인근, 순천 호수공원(11.5/회원14명 참여)
활동평가	-들내지기 대장 : 윤숙미 회원 자원활동 -코로나로 일상에 지친 회원님을 위한 '치유의 숲길' 진행

	-자연에 드는 시간들, 녹색연합 4대 강령 돌아보기, 녹색인의 수칙 등을 상기하며 녹색연합 회원의 소속감 확대 -사무국 활동가들의 토/일 휴일 활동과 준비업무들이 가중되는 부분은 있지만 회원과의 만남을 미룰 수 없는 상황, 운영위원의 참여와 역할 등 해소방안을 찾아야 함
활동사진	
사 업 명	**녹색이음 '도심텃밭&자투리텃밭&상자텃밭'가꾸기**
사업목표	생태순환사회 확대, 도심텃밭 만들기, 채식 일상화, 탄소배출을 줄이는 소소한 만남
사업내용	○ 4월 녹색이음-상자텃밭 만들기 참가자 모집 사무국 베란다 텃밭 만들기 ○ 5월 녹색이음-회원과 함께하는 소소한 밥상(5.26/사무국 베란다 텃밭에서 수확된 야채를 이용하여 준비) ○ 7월 마을 자투리 공간 상자텃밭 만들기(7.10/김광민 평생회원 자원) ○ 8월 배추, 무 파종하기, 복돋아주기 마을텃밭 돌보기
활동평가	-회원님들과 함께 생태순환사회 의미 이야기 나눔

	-베란다 텃밭 만들기 및 사무국 앞, 자투리 공간 마을 상자텃밭 가꾸는 활동을 통해 삶에 에너지 자립, 생태순환적인 삶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법과 기회를 만듦
활동사진	
사 업 명	**창립13주년 기념행사**
사업목표	후원금 모금, 전남녹색연합 활동 홍보, 기후위기 토크, 회원과 소통
사업내용	○ 사업명 : 창립13주년 기념행사 ○ 주 제 : 분노와 혐오의 시대를 넘어 희망을 모색하다. - '다정한 것이 살아 남는다' ○ 일 정 : 2022년 10월 22일(토) 오전10~오후1시 ○ 장 소 : 광양예술창고(전남도립미술관 앞) ○ 내 용 : 신윤 작가 초대전, '멸종위기 인간, 사라지는 동물들' 전시회(10월22-27일),아름다운 지구인상(신윤작가,두껍마을 대소동 작가 소개),평생회원 소개, 2022년 활동소개 ○ 모금목표 : 20,000,000원

활동평가	○ 모금액 : 25,000,000원(목표액:20,000,000원) ○ 행사준비 및 답례품 : 4,500,000원 ○ 평가: -기후위기 대전환 시대에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정책은 퇴보되고 있으며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을 기반으로 하는 신공항 개발 및 개발과 성장이라는 명분으로 서식지 파괴를 지속하고 있음 -창립13주년 기념행사는 천재 소년 '신윤' 어린이의 '멸종위기 인간'이라는 작품을 전시하며,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행위와 욕망으로 인해 사라진 멸종위기 동물 등의 그림을 전시 하며 우리사회에 메시지를 전함. -전남녹색연합의 두꺼비 서식지보호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했던 어린이가 '두껍마을 대소동' 책을 펴냄, 작가를 초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며, 미래세대가 주인공이 되는 창립13주년 기념행사를 추진함 -7명의 평생회원 발굴, 회원답례품으로 천 마스크, 대나무칫솔, 현미쌀, 섬진다원 발효차 등을 답례품으로 발송하여 답례품에 담긴 정성과 가치 높이 평가받음 -녹색시민교사들의 자원활동 및 소속감 확대
활동사진	

Ⅲ. 사업 활동보고

지역 현안대응

사 업 명	광양만권 환경대응 및 시민제보 대응활동
사업목표	2022년 사업계획 외 지역주민들의 환경권 보호 및 대응을 위해 성실한 환경 민원대응을 위함
사업내용	○ 광양바이오매스 발전소 현안대응 - 산자부 조건부 승인의 환경감시 협의체 구성과 법대위 역할 논의 - 6월17일 환경협의체 구성 논의 대책회의(골약동사무소 3시) - 7월07일 대책회의(환경운동연합16시) - 7월18일 환경협의체 구성 재논의 광양읍 발전협의회 참여 논의(18:30/청소년문화센터) - 8월11일 환경협의체 구성에 대한 변경 협의(2021.9.15.협의안으로 재확정, 전문가2, 주민대표2, 시민단체2, 사업자2, 행정2인) 역할:보안된 환경영향평가 이행사항 준수사항 감시 - 9월5일 발전소 공사 착공(2025년 준공예정) - 9.15(목) 환경협의체 구성 논의 실무회의 -10.26(수) 발전사업 공사장 현장 방문 -11.17(목) 환경협의체 협의회 준비회의, 전문가 추천(순천대학교 환경공학과 박성훈교수) -12.06(화) 환경협의체 주민간담회, 환경감시단 구성을 위한 협의 ○ 조례호수공원 오염물질 배출 현장조사 - 일정 : 2022.4.04. - 내용 : 순천 조례호수공원 오염물질 배출민원제기, 순천시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부실 문제제기, 비점오염저감 시설 현황 정보공개 청구 - 성과 : 순천시 담당자와 현장 조사, 15년 동안 관리되지 못했던 비점오염시설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 ○ 416 세월호 여덟 번째 봄 추모제 - 일정 : 2022.4.15.~16 - 내용 : 광양서천변 바람개비 설치 참여, 순천 추모 걷기, 음악회 참여, 현수막 개첨 연대 ○ 구봉산 관광개발 관련 현안대응 및 멸종위기종 서식 모니터링 - 일정 : 2022.6.07. - 내용 : 구봉산 관광지 개발 대상지 멸종위기 보호종 팔색조, 및 긴꼬리딱새 서식 민원제보에 따른 모니터링(김인철 이학박사 동행)

	- 멸종위기 보호종 서식지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의견서 보냄 - 구봉산 관광단지 개발 주민설명회 참여(10.26) -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 의견서 제출(11.18) ○ 순천 남정공원 어린이 체육공원 건립 대응 - 6.30 마을공원이 사라질 위기라며 주민민원 제기 - 7.11 순천 남정공원 주민대책위 간담회(19시/남정공원) - 7.13 순천시의회 최미희의원 면담(순천 남정공원 주민들의 의견이 수용 협조) - 8.02 남정공원 주민설명회(주민80여명/순천시/순천시민사회단체/주민대책위) - 8.09 남정공원관련 순천시 도시재생과 간담회(19시/전남녹색연합) - 8.17 남정공원 순천시&지역 간담회(19시/남제동사무소) ○ 태인동 OCI 배출시설 국민신문고 민원제기 - 6.09 일몰 후, 배출시설 오염물질 과다배출 민원대응 ○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연대 여성평화 걷기 - 4.24(일) 광양읍 장애인복지관-서천변-도립공원-유당공원-정채봉문화테마길-광양평화의소녀상-점심식사 및 간담회(박수완/박미선 참여) ○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전남동부지역범시민대책위 출범 기자회견 참여(4.26) ○ 국가산단지역 이해관계자 초집단면접 관련협의 - 일시 : 1차-2022.8.16.(화)14~16시/2차-12.01(목) - 1차 내용 : 광양만국가산단 지역주민 환경오염노출 및 건강영향조사 관련 온라인 논의/국립환경과학원, 단국대학교의과대학 연구자/환경단체) - 2차 내용 :광양만권 건강영향조사 보건의료 연구진과 온란인 간담회(국사산단 및 주요산단 건강영향조사 실태 공유, 4차 조사 고려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의견, 거주기간별 추적조사 등 필요) ○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발표 - 일시 : 2022.12.07.(수)13:30~17:00 - 장소 : 하동 금성면 복지회관 - 내용 : 하동 및 광양만권 지역주민들의 건강영향에 대기환경 영향이 있다는 결과발표, 추후 국가산단 4차 조사에 필요한 의견들을 전달

Ⅲ. 사업 활동보고

조직운영&전국녹색연합 연대

사 업 명	전남녹색연합 단체명 변경 및 회원총회
배경및목표	2021년 운영위원회에서 부터 광양만녹색연합 단체명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 기후위기 대응 탈탄소 대응 및 녹색교육운동 확대, 대기환경 감시 및 산단 대응 등 이미 전남도 권역의 대응을 펼치고 있음 전남지역 및 동부권 회원확대
사업내용	○ **논의 및 변경과정** - 1차 종준위 회의(22.01.04), - 2차 총준위 회의(22.01.13), - 단체명 변경 회원 설문결과 총준위 보고(2022.1.14. 회원설문결과 44명 참여, 43명 찬성, 반대1명) - 3차 총준위 회의(22.01.27온라인) - 논의결과 : 22년 회원총회에 단체명 변경 안건 상정 원안승인 - 3월 전남녹색연합 단체명 변경 보도자료 배포(3.08) - 4월 사업자등록증, 법인통장 변경, 홈페이지 변경, 사무국 변경 완료 ○ **2022 회원총회** - 일정 : 2022.02.22.(화)저녁6:40~8:40 - 방법 : 대면 및 비대면 총회(온라인 Zoom) - 참석 : 공동대표 및 운영위원회 회원 44명(정관 제4장 제7조 조직 4 의결 ①총회는 회원의 참석으로 성립한다)의하여 총회성립 - 논의내용 : 2021 재무감사보고, 사업감사보고, 2021활동보고, 논의안건 1안, 2022사업계획안 2안, 2022수입지출안, 3안, 단체명 변경 및 단체명 변경에 따른 정관개정안, 4안 선출직 임원 선임 및 해임 위임 안 - 논의결과 : 원안대로 통과되어 승인됨. ○ **활동가 교육 및 신입활동가 채용** - 6월 사무국 활동가 워크샵(지리산 화엄사 쉼과 대화/6.11) - 7월 활동가 해외연수 지원(박미선) - 7.25 개인정보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한 온라인 교육 - 7~8월 새내기 활동가 모집공고(1-2차 공고) - 8.31 활동가 지원 신청(1인) - 9.02 지원자 1인 상황 공동대표 논의/면접위원 선정(현능스님,박발진,송은주 공동대표,김양임 운영위원 참여)

	- 9.06 새내기 활동가 면접(보광사10시) - 10월 활동가 대회 참여(장영림 새내기 활동가 참여 지원)
사 업 명	**사무처국장단회의 및 전국녹색연합 연대활동**
사업목표	녹색연합 활동가 역량강화 및 전국녹색연합 소통과 연대
사업내용	○ 사무처국장단 회의 - 5.18 3%단비기금 사업 논의,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전남녹색연합, 박미선 팀장, 7월 중 진행 - 6.13~15 사무처국장단 워크샵(목포) - 11.30(수) 사무처국장단 온라인 회의, 대구경북 관련 조사 소위원외회 구성(인천,대전,전남,부산 사무처장 참여) ○ 전국녹색연합 하계 수련회 - 일정 : 2022.8.18.~19 - 장소 : 북한산 국립공원 내 - 내용 : 녹색연합 정통성 논의, 로고 변경 집담회, 조직내 성희롱, 성평등 교육, 기후위기 대응 퍼포먼스, 북한산 숲 들기 ○ 전국녹색연합 대표자 회의 - 6.30(목)10시 - 9.16(금)14시(대전커먼즈필즈) 회계교육 별도 -12.05(월) 녹색연합 정통성 대구경북녹색연합 활동 관련 소위원회 회의(대전 커먼즈필즈 12시/본부,대전,인천,전남) -12.16(금) 대구경북녹색연합의 대구통합신공항 개발 운동에 대한 자료정리(2011년 소음피해 문제 제기에서부터 시작, 2014년부터 통합신공항 유치, 2018년 정치권과 소통하면서 등 앞장서 활동한 부분에 대한 자료정리하여 소위원회 제출)

2022년 결산보고

2022 전남녹색연합 재정결산

(2022 12월 31일 기준)

내역	금액	내역	비고
현금	44,723,599		
특수목적기금 (적금)	5,000,000		
임차보증금	3,000,000	미지급비용	제세공과금/4대보험
			839,390
총자산	**52,723,599**	**총미지급비용**	**708,690**
		당기순이익	**52,014,909**

2022년 전남녹색연합 세부수입결산

수 입 부			
항	목	금액	세부내역
전년이월		**53,679,764**	
기부금	개인기부금	72,773,533	cms회비, 이체회비, 연회비, 회원기부
	영리법인기부금	7,760,000	기업등 영리법인 회원기부
	공익법인기부금	2,070,000	시민단체 등 공익법인 회원기부
	기타기부금	1,300,800	무기명 기부금
	소 계	**83,904,333**	
사업비	녹색사회운동	24,390,000	숲샘마을학교 15,000,000 두꺼비서식지 보호 5,360,000 연대사업 2,800,000 자람생태학고 1,230,000
	에너지기후변화대응	10,504,090	타라재단공모 10,504,090
	소 계	**34,894,090**	
기타	이자수입	40,882	이자수입 외
	고령지원금	300,000	고령자안정자원지원금(고용보험)
	예수금	1,188,210	부가세 예수금
	잡이익	5,979	퇴직급여 손익금
	소 계	**1,535,071**	
합계		**120,333,494**	
총계		**174,013,258**	

2022년 전남녹색연합 세부지출결산

지 출 부			
항	목	금액	세부내역
운영비	인건비	44,765,660	활동가 인건비(3인)
	상여금	2,200,000	명절 상여금
	퇴직급여	2,613,816	퇴직급여
	사대보험	9,414,390	4대보험
	복리후생비	1,413,170	식비, 사무실커피
	교육훈련비	100,000	전국활동가대회 참가비
	임차료	2,400,000	임대료(12개월)
	수도광열비	883,440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회의비	614,580	운영회의, ZOOM 년간사용료
	여비교통비	591,700	전국운영회의, 전국활동가수련회
	통신비	660,300	전화요금, 인터넷요금, 우편요금
	세금과공과	248,870	주민세, 법인세
	도서인쇄비	404,100	신문구독료, 명함제작, 도서구매
	소모품비	2,570,380	신입활동가컴퓨터,모니터,오피스프로그램등
	지급수수료	671,803	타행이체수수료, CMS유지, 홈페이지
	접대비	125,000	회계감사, 활동감사
	경조,기부금	300,000	인천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창립기념행사축하금
	3%기금	940,000	단비기금(12개월)
	소 계	70,917,209	
사업비	녹색사회운동	32,738,212	숲샘마을학교 15,004,129
			두꺼비서식지보호 6,000,360
			회원사업 5,889,400
			연대사업비 3,088,650
			교육청생태교육연구비, 상리공생 2,361,300
			녹색시민교육 394,373
	생태보전운동	351,700	구봉산멸종위기종모니터링,세풍습지보호 351,700
	야생동물보호운동	1,566,690	두꺼비모니터링, 두꺼비인식개선도서제작 1,566,690
	환경안전운동	13,945,800	동네방네기후행동 1,384,500
			제철소공해피해조사 9,924,300
			전남기후위기비상행동 2,637,000
	회원사업	1,605,710	자람생태학교
	소 계	50,208,112	
모금비용	시민참여운동	1,976,038	회원관리비용
기타	강사비예수금	1,188,300	마을학교등 강사비원천, 지방세
	특수목적기금	5,000,000	특수목적사업기금
	소계	6,188,300	
합 계		129,289,659	
차년이월		44,723,599	
총 계		**174,013,258**	

안 건

제1호 안건

- 2023년 임원선출 안

1) 운영위원 연임보고 및 선출 안

제2호 안건

- 2023년 사업계획 안

제3호 안건

- 2023년 예산계획 안

제4호 안건

- 정관 개정 안

제5호 안건

- 2023년 선출직 임원 선임 및 사임 위임 안

조직구도표

직 위	성 명	직 업	직 위		성 명	직 업
상임의장	현 능	보광사 주지스님	감사		노동진	관악회계사무소
공동대표	송은주	파란직업전문학교			김용주	우리치과
	박발진	사과나무행복연구소	운영위원장		김의성	옥룡북초등학교 교장
고문	박두규	전남청소년미래재단원장	운영위원	환경정책 생태보전	이경재	LG데코빌 대표
	정용성	노을 조은 농원			박미라	어린이집 교사
	이평재	前공동대표		기후위기 생태전환	김양임	성평등교육전문강사
	이재민	前상임대표			박경숙	재미난협동조합
자문/ 전문위원	박상숙	순천대학교 환경공학		녹색교육 시민참여	양재희	녹색시민교사
	박성훈	순천대학교 환경공학			장지원	녹색시민교사
	성하철	전남대학교 생물학 교수			이혜경	녹색시민교사
	김상민	섬진다원		녹색평론 지역소통	최광철	회사원
	김인철	전남대학교 동물생태 교수			정상현	회사원
	조천래	해양학 박사	사무국	사무처장	박수완	상근
	안삼영	순천대학교 환경교육학		팀 장	박미선	상근

제1호 안건 - 임원 선출 및 승인 안

1. 공동대표 연임 안

현능스님	010-8599-****	보광사 주지스님	연임
박발진	010-3944-****	전 제철고등학교 교사 퇴직	연임
송은주	010-7576-****	파란직업전문학교	연임

2. 고문위원 연임 안

정용성	010-3632-****	前공동대표/노을조은공원대표	연임
박두규	010-4659-****	광양YMCA이사장	연임
이평재	010-8565-****	부저농원/前공동대표	신임
이재민	010-3636-****	前공동대표	신임

3. 감사 연임 안

노동진	010-8947-****	관악회계사무소	연임
김용주	010-7627-****	우리치과	연임

4. 자문위원 연임 및 위촉 안

박상숙	010-9096-****	순천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연임
박성훈	010-4175-****	순천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연임
성하철	010-3028-****	전남대학교 생물학과 교수	연임
김상민	010-5604-****	섬진다원	연임
김인철	010-7396-****	전남대학교 이학박사	연임
조천래	010-4623-****	해양학박사/광양만특별관리해역 협의회 사무국장	연임
안삼영	010-9633-****	순천대학교 환경교육학과 교수	연임

5. 운영위원 연임 및 선출 안

김의성	010-8619-****	옥룡북초등학교 교장	연임
이경재	010-3628-****	LG데코빌 대표	연임
김양임	010-5494-****	성평등교육 전문강사	연임
박경숙	010-2627-****	사회적협동조합 디딤돌 이사	연임
최광철	010-7248-****	회사원	연임
박미라	010-3626-****	어린이집 교사	신임
양재희	010-2627-****	녹색시민교사	신임
이혜경	010-6603-****	녹색시민교사	신임
장지원	010-9204-****	녹색시민교사	신임
정상현	010-4945-****	회사원	신임

5. 운영위원장 선출 및 사무처장 연임 안

1) 운영위원장 연임 안 : 김의성

2) 사무처장 연임 안 : 박수완

제2호 안건 - 2023사업계획 안

Ⅰ. 활동목표

① 기후위기 대응(생태전환&신공항개발 저지&탈핵운동)
② 생물다양성 보호(양서류&두꺼비)
③ 생태계 서식지 보전보호(백운산/섬진강/하천/연안 생태)
④ 녹색교육(생태전환교육/숲샘마을학교/녹색교육활동가 역량강화)
⑤ 회원사업 및 녹색이음&조직강화
⑥ 현안대응 및 지역사회와 소통

Ⅱ. 2023년 핵심활동

① 기후위기 대응
- 4월 세종시 기후행동, 9월 기후행동
- 매월1일 우리동네 기후행동 캠페인
- 사무국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프로젝트
- 전남기후위기 비상행동 실무
- 기후솔루션 '석탄을 넘어서'연대

② 생물다양성 보호
- 양서류&두꺼비 서식지 보호
- 생태통로 및 유도울타리 모니터링(집중조사:2-6월/사계절 조사)
- 두꺼비 이동돕기&주민참여 확대(2~6월)
- 전국양서류네트워크 워크샵 활동가 연대

③ 생태계 서식지 보전보호
- (가)백운산국립공원추진을 위한 연대활동
- 섬진강, 습지, 연안생태 서식지 개발 감시 및 대응
- 도심숲&가로수 시민조사
- 세풍저류지 및 동·서천 생태계 복원사업 시민참여

④ 녹색교육(환경/생태)
- 전남 2023 생태전환교육 전문위원(전라남도교육청)
- 숲샘마을학교(광양읍 관내 초등학교 대상 학교숲&마을숲/비전력놀이)
- 생태전환교육(옥곡초/다압초/왕지병설/옥룡초/옥룡북초등학교 외)
- 녹색교육활동가 역량강화

⑤ 녹색이음&회원사업&조직강화
- 100인 회원이음(년간 100명 이상 회원확대)
- 자람생태학교(회원자녀 대상 생태감수성 체험)
- 들내지기/후원행사/회원총회
- 신규회원 분기별 만남'녹색입문'작은 것은 아름답다(연4회)
- 운영회의(매월)사무처국장단회의(2개월1회)전국녹색연합대표단회의
- 운영위원회 소모임(기후대응/녹색교육/탈핵&신공항개발대응)
- 녹색순례(활동가+회원참여/4-5월)

⑥ 현안대응 및 지역사회 소통
- 녹색전환사회를 위한 연대
- 국가산단주변지역 주민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
- 광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전남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 광양우드펠릿발전소 개발 및 운영 감시

Ⅲ. 영역별 사업계획안

1. 기후위기 대응

1) 우리동네 기후행동 e전환 서포터즈

- 사업기간 : 2022년 8월~2023년 5월
- 사 업 비 : 10,000,000원(타라기후재난 공모선정)
- 활동내용 : 우리동네 기후학교 운영, 동네방네 기후행동 캠페인, 기후정의 의제 발굴을 위한 기후정책 토론회, 탈탄소 생태순환과 자립을 위한 의/식/주 전환운동(바느질모임,채식한끼,생태건축)

2) 기후위기 전남비상행동

- 사업기간 : 2023년 1월~12월
- 사 업 비 : 4,000,000원(연대단체 분담금)
- 활동내용 : 4월 세종시 기후파업, 9월 집중기후행동, 석탄을 넘어서 연대

3) 신공항개발 저지&다시 탈핵

- 사업기간 : 2023년 1월~12월
- 사 업 비 : 3,000,000원(참가자 분담금)
- 활동내용 : 전남동부지역사회 새만금 수라갯벌 영화상영, 수라갯벌 들기, 한빛원전 수명연장 반대, 고준위 핵 폐기물 처리장 저지운동

2. 생물다양성 보호 운동

1) 양서류 서식지 보호

- 사업기간 : 2023년 1월~12월
- 사 업 비 : 6,000,000원
- 활동내용 : 두꺼비 이동 돕기 및 로드킬 조사, 생태통로 및 유도울타리 실태조사, 우리동네 양서류 서식지 시민조사, 전국양서류네트워크 워크샵, 생태통로 시설관리 개선을 위한 조사결과 발표

기간	주요활동	비고
1.02~1.30	-로드킬 개선을 위해 비촌마을 농수로 퇴적물 제거 -생태통로, 산란지 환경정화 -두꺼비 산란이동 안내 및 홍보 현수막 -모니터링 세부계획안 기획	광양시 자원순환과 협조공문
2.01~3.30	-두꺼비 서식지 보호를 위한 시민모니터링(업동저수지	두꺼비친구들

	/비평저수지) -성체 두꺼비 포획·이주 현황, 로드킬 조사 -생태통로 이동 및 유도울타리 시설현황 조사	자원순환과
3.15~04.30	-양서류 서식지 보호를 위한 네트워크 -우리동네 양서류 산란지 시민조사	두꺼비친구들 경남양서류네트워크
5.01~8.20	-새끼두꺼비 이동돕기 -생태통로 이동 및 유도울타리 시설현황 조사 -우리동네 맹꽁이 산란지 시민조사	순천,광양,구례,하동
9.01~10.30	-양서류 보호 인식증진 워크샵 (양서류 서식지 보호 활동사례 공유 및 네트워크, 결과보고 발표)	양서류네트워크

2) 백운산국립공원추진을 위한 연대활동

- 사업기간 : 2023년 1월~12월
- 사 업 비 : 1,000,000원
- 활동내용 : 백운산 생물다양성 시민조사(청소년, 가족참여)
- 활동목표 : 백운산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관리개선 요구, 백운산소유권 문제해결, 백운산 임도 관리 및 훼손도 파악, 백운산국립공원지정 청원운동

기간	주요활동	비고
2,3월	-백운산 생물다양성 조사 사업기획 -시민모니터링 홍보 및 구성	
4월	-백운산 임도 걷기, 백운산 훼손도 파악	광양시의회/광양시/시민참여
5~10월	-백운산 생물다양성 조사 -백운산 숲길 걷기	서울대학술림 서울대,전남대, 순천대,회원참여
11~12월	-활동평가	

3) 도심숲&가로수 시민조사

- 사업기간 : 2023년 1월~10월
- 사 업 비 : 5,000,000원
- 활동내용 : 우리곁에 나무들 도심숲&가로수 시민조사(청소년 참여)
- 활동목표 : 생태축 생명잇기 도심숲&가로수 시민조사, 광양읍 가로수의 순기능 회복, 소생물들의 비어톱 확대, 생태적 가로수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3. 재정 및 회원확대사업

1) 회원확대 '전남녹색이음 100인 확대'

- 사업기간 : 2023년 1월~12월 31일
- 활동대상 : 운영위원회, 소모임 포함 매월 8명 이상 회원 확대
- 활동목표 : 100명 이상, 회원잇기 릴레이

기간	주요활동	비고
2월	-회원총회, 회원사업 기획 및 홍보	총회
3~6월	-녹색순례 회원참여	회원참여
7~8월	-운영위원회 하계 워크샵 -후원행사 준비위원회 -평생회원 발굴	자연에 들기
9~12월	-후원행사, 활동영상 홍보, 회원사업 돌아보기	사무국

2) 창립 14주년 후원행사

- 후원행사 일정 : 2023년 10월 중하순
- 후원행사 컨셉 및 일정, 장소, 사업계획안(8월 중 운영회의 기획안)
- 행사준비 : 4,000,000원
- 모금목표 : 25,000,000원
- 활동내용 : 평생회원, 특별회원 발굴, 녹색연합 홍보, 자원활동가 소통과 역할교육

4. 녹색교육사업

1) 녹색교육 연구회

- 사업기간 : 2023년 2월~11월(년6회)/두 번째 목요일
- 대　　상 : 생태환경전문가&학교 및 교사&녹색시민교사(30명모집)
- 사업목표 : 생태전환 교육 의/식/주 자립과 순환 교육연구
- 활동내용 :

기간	주요활동내용	비고
2월	○ 오늘부터 채식 - 이음학교 교직원 채식입문 교육(2.21~23) - 녹색텃밭 만들기	
3월	○ 제철 채소를 이용한 소소한 밥상	

	- 텃밭과 제철 채소를 이용한 한 끼	
5월	○ 바늘과 실 이야기 - 바느질 교육을 통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6월	○ 동네목수 우리주변의 야생동물 집짓기 - 에너지 자립 생태건축, 새집, 고양이 집 만들기	

2) 숲샘마을학교

- 사업기간 : 2023년 2월~11월
- 교육대상 : 광양동초등학교, 광양칠성초등학교, 광양덕례초등학교, 광양북초등학교
- 사 업 비 : 15,000,000원
- 사업목표 : 생터전환교육을 통해 미래세대들과 지역주민들이 어울려 자연과 마을의 생태문화를 소중히 알며 녹색가치를 존중하는 생태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
- 운영방법 : 2월중 학교에 공문을 대성 선정, 1년 4회로 진행, 녹색시민교사 파견, 인동숲, 유당공원, 서산 및 서천 활동 및 생태전환교육지원

3) 찾아가는 생태전환교육

- 사업기간 : 2023년 3월~11월
- 사 업 비 : 학교부담
- 활동내용 : 전남동부 생태전환 환경교육 및 생태감수성 활동지원
- 교육내용 : 학교숲&마을숲 체험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며 생명존중, 생물다양성 이해, 기후위기 인식 및 대응을 위한 생태시민 양성, 탄소배출을 줄이는 구체적 삶의 태도 키우기 채식밥상 만들기, 학교텃밭교육, 옷수선교육, 새집짓기

4. 회원사업

1) 녹색입문 녹색은 처음이야!

- 사업기간 : 2023년 3월~12월(3,6,9,12월 분기별 신규회원 만남)
- 사 업 비 : 1,000,000원(작은 것은 아름답다 읽기 모임, 슬기로운 녹색생활 용품, 손수건 주머니 만들기)
- 사업대상 : 신규회원, 운영위원, 회원과의 소통
- 사업내용 : 신규회원 만남, 녹색연합 전문과 강령읽기, 녹색인의 수칙 소개, 착한 밥상, '작은 것은 아름답다' 입문, '비닐대신 손수건' 오일장 소비

2) 자람생태학교 우리동네 숲으로 풍덩!

- 사업기간 : 2023년 2월~11월(년8회 운영)
- 사 업 비 : 2,000,000원(참가자 부담1,500,000/녹색연합500,000)
- 사업목표 : 회원참여 프로그램, 가족회원가입 확대, 어린이 녹색교육 사업
- 참여대상 : 광양만녹색연합 회원 자녀 대상 50명 모집(초등학생 대상)
- 활동일정 : 매월 셋째주 토요일 권역별 숲 체험
- 세부일정

일정	주요 활동 내용	장소
2월 말	오리엔테이션	전남녹색연합
3.18	탄소 저장 나무 심기	순천/광양
4.15	우리 두꺼비 만나러 가요	백학공원
5.20	우리동네 숲, '봉화산 둘레길 걷기'	업동저수지
6.17	자원순환 나눔장터 + 비전력놀이	인동숲
7.15	지리산 옛길 걷기	지리산
9.16	나무와 숲친되기 '숲 밧줄놀이'	순천/광양
10.21	숲과 친구 되기 '에코티어링'	유당공원
11.18	세풍습지에서 만나는 '겨울철새' 이야기 / 세풍습지 기사쓰기	세풍습지

3) 한 달에 한 번 자연에 들기 '들내지기'

- 사업기간 : 2023년 3월~11월(년8회 운영)
- 사 업 비 : 참가자 개인 부담(이동,식비)
- 사업목표 : 회원과 소통, 자연에 한 발 더 다가서며, 자연을 깊이 있게 이해
- 참여대상 : 시민, 회원, 회원가족, 녹색시민교사
- 활동일정 : 매월 첫 번째 토요일
- 들내지기 대장 : 녹색시민교사 월별 대장

4) 아름다운 지구인, 녹색순례

- 사업기간 : 2022년 4월~5월 중(10일)
- 사 업 비 : 개인부담
- 사업내용 : 자연에 들어 자연과 소통하며 진정한 녹색운동을 돌아봄
- 장소 및 세부일정 추후 홍보자료 준비하여 홍보와 참가자 모집예정(3월 중)

5) 조직강화

- 전남녹색연합 운영회의(매월 세 번째 목요일)
- 운영위원회 소모임 활성화(기후대응/탈핵/녹색교육/회원확대)
- 운영위원 및 활동가 내규 정비

5. 현안대응 및 지역사회 소통

① 녹색연합

-목표 : 전국운영위원회, 사무처(국)장단 회의, 기후행동 연대,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원전·화력발전소줄이기, 수라갯벌 지키기, 지역활동가 워크샵, 녹색순례 등 연대

② (가칭)백운산국립공원추진위원회

- 목표: 백운산 소유권 문제해결 및 국립공원 추진 시민운동
- 연회비: 월2만원(년24만원 소요예상)

③ 기후위기 전남비상행동

- 목표 : 기후위기 대응, 탈핵 한빛원전 대응, 신공항 저지, 화력발전소 저지운동

④ 광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더 낳은 광양 및 전남시민사회를 위한 정책 및 현안대응, 시민단체 교류 및 실무자 교육 및 역량강화

⑤ 여순10.19특별법제정을 위한 범시민연대

⑥ 전남양서류네트워크&경남양서류네트워크

- 양서류 공공현수막 대회 참여, 전국 양서류 보호활동 및 인식증진, 학술연구 보고를 위한 네트워크, 양서파충류의 로드킬 문제개선 및 서식지보호 활동

⑦ 전남환경교육네트워크

- 목표 : 기초환경교육 목표 설정, 전남 환경교육 한마당 개최 연대

제3호 안건 - 2023년 수입 지출 예산계획 안

기간 :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단위 : 원)

과 목	금 액	
전년이월		44,723,599
1. 수입총계		**122,440,000**
1) 회비수입		**59,000,000**
1, CMS회비	450×12×10,000=54,000,000	
2, 기타회비	5,000,000	
2) 기부수입		**26,000,000**
1, 물품기부	1,000,000	
2, 창립기념	25,000,000	
3) 사업수입		**37,400,000**
1, 공모사업	35,000,000	
2, 서식지보호	1,000,000	
3, 자람생태(교육,참가)	1,400,000	
4) 기타수입		**40,000**
1, 이자수입	40,000	
2. 지출총계		**167,163,599**
1) 운영비		**84,500,000**
1, 시설비용	3,500,000	
2, 인건비	70,000,000	
3, 복리후생비	2,000,000	
4, 소모품비	2,000,000	
5, 회의비	1,000,000	
6, 통신비	900,000	
7, 교육훈련비	1,00,000	84,500,000
8, 도서인쇄비	800,000	
9, 여비교통비	800,000	
10, 경조비	500,000	
11, 단비기금(3%기금)	1,000,000	
12, 세금과공과	400,000	
13, 지급수수료	600,000	
2) 사업비		**82,663,599**
1, 녹색사회운동	30,000,000	
2, 생태보전운동	5,000,000	
3, 야생동물보호운동	10,000,000	
4, 환경안전운동	15,000,000	82,663,599
5, 시민참여운동	4,500,000	
6, 특수목적기금	10,000,000	
7, 예비비	3,163,599	
수 입 총 계	**지 출 총 계**	**차 년 이 월**
167,163,599	**167,163,599**	**0**

1. 세부 수입 안

기간 :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단위 : 원)

수 입 예 산			
항	**목**	**금 액**	**내 역**
전 년 이 월		44,723,599	
회비수입	CMS회비	54,000,000	450명*12개월*10,000원=54,000,000
	기타회비	5,000,000	영리법인,이체회원
	소 계	**59,000,000**	
기 부 금	현물기부	1,000,000	물품기부
	창립기념	25,000,000	창립기념, 기부금
	소 계	**26,000,000**	
사업수입	공모사업	35,000,000	숲샘마을학교,타라재단,에너지전환,환경보전,
	자람생태	1,400,000	자람생태학교 참가비
	모니터링	1,000,000	세풍습지 시민조사 참가비
	소 계	**37,400,000**	
기타수입	이자수입	40,000	이자
	소 계	**40,000**	
	총 계	**167,163,599**	

2. 세부 지출 안

기간 :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단위 : 원)

지 출 예 산			
항	**목**	**금 액**	**내 역**
운영비	시설비용	3,500,000	임차료, 수도광열비
	인건비	70,000,000	활동가 급여, 4대보험, 퇴직급여,상여금
	복리후생비	2,000,000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2,000,000	문구류, 사무용품, 전산용품 등
	회의비	1,000,000	간담회, 운영회의 등
	통신비	900,000	전화요금, 인터넷사용료, 우편료
	교육훈련비	1,000,000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샵
	도서인쇄비	800,000	한겨레, 도서 구매, 지역신문
	여비교통비	800,000	여비교통비
	경조비	500,000	전국녹색연합, 지역시민단체 등 창립행사
	단비기금	1,000,000	전국녹색연합 3%기금
	세금과공과	400,000	법인의 국세, 지방세
	지급수수료	600,000	CMS수수료, 금융수수료
	소 계	**84,500,000**	
사업비	녹색사회운동	30,000,000	녹색교육, 숲샘마을학교, 회원사업, 자람생태학교, 연대사업
	생태보전운동	10,000,000	백운산국립공원, 세풍습지보호등
	야생동물보호운동	10,000,000	두꺼비모니터링, 두꺼비로드킬개선,환경보전
	환경안전운동	15,000,000	전남기후위기비상행동, 동네방네기후행동
	시민참여운동	4,500,000	회원관리비용
	적립금	10,000,000	특수목적기금
	예비비	3,163,599	기타 예비비
	소 계	**82,663,599**	
차년이월		0	
총 계		**167,163,599**	

제4호 안건 - 정관 개정 안

정관개정 사항 : 정관 내, 단순 명칭에 대한 변경
예 : 사무국장의 선임→사무처·국장의 선임, 후원금→기부금

제5호 안건 - 선출직 임원 선임 및 해임 위임 안

1. 총회 승인사항인 선출직 선임이 회기 중에 발생 될 수 있으므로 원활한 회 운영을 위해 추가선임이 필요할 시엔 운영위원회에 위임 해줄것을 요청합니다.

〈시상식〉

1. 녹색인상

지난 한 해 동안 녹색운동에 기여하신 분들께 총회 자리를 빌어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다음 분들에게 '올해의 녹색인'상을 드립니다.
○ 대상자 : 권지민, 김승민

2. 녹색언론기자상

국가산단 및 제철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 문제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취재·보도해 주셔서 광양제철 및 광양만권 대기환경 개선에 그 공이 크기에, 이번 총회에서 '녹색언론기자상'을 드립니다.
○ 대상자 : KBS 윤주성 기자

(사)전남녹색연합의 녹색교육과 시민참여 사업에 기여 해주신 권지민 선생님과, 김승민 회원님께 감사드리며, 제철소 고로 브리더 방지시설 도입 및 관리규제 방안 마련에 기여해주신 윤주성 기자님의 취재와 보도에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3. 아름다운 지구인상

○ 대상자 : 신윤(어린이 화가), 이보민, 신서윤 학생(두껍마을 대소동)

무한성장과 무한개발 산업사회에서 서식지를 잃고 사라지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현실을 '멸종위기 인간'이라는 메시지를 담아 그림으로 생명운동을 잇고 있는 신윤 어린이 작가를 응원하며, 오랜 시간동안 두꺼비 이동 돕기에 참여하며 느꼈던 감정들을 재미있고 의미있는 이야기와 그림으로 풀어낸 이보민, 신서윤 학생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전남녹색연합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모임은‘(사)전남녹색연합’(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모임은 녹색연합의 4대 강령(생명존중·생태순환형 사회의 건설·비폭력 평화의 실현·녹색자치의 실현)의 실현과 전남지역에서 녹색생명활동과 생태계보전활동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 본 모임의 사무국을 광양만권에 둔다.
제4조 (구성) 본 모임은 제2조의 목적에 동의하여 가입한 회원들로 구성되며,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한다.

제2장 사업

제5조 (사업) 본 모임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자신의 삶과 삶터를 녹색으로 바꾸는 시민참여사업
2. 생태계보전과 지속가능한 생태순환사회를 위한 정책제안사업
3. 녹색자치의 실현을 위한 조직사업 및 지역연대사업
4. 생명존중과 환경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홍보·출판문화사업
5. 환경의 질 개선을 위한 감시·조사·연구사업
6. 전라남도의 환경현안 해결을 위한 국내·외 환경단체 및 사회단체와 연대사업
7. 기타 본 모임의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사업

제3장 회원

제6조 (회원) 회원은 본 모임의 목적에 찬동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가입한 개인과 단체로 한다.
1. (권리)
① 회원은 본 모임의 운영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② 회원은 각 회원모임을 구성하고 활동할 권리를 갖는다.
③ 회원은 본 모임 내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2. (의무)
① 회원은 자신의 삶과 삶터를 녹색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
② 회원은 본 모임의 강령과 수칙, 정관을 지킬 의무가 있다.
③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회원은 본 모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3. (탈퇴) 탈퇴를 원하는 회원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4. (자격상실) 우리 모임의 회원으로서 정관 및 내규를 준수하지 않거나 우리 모임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써 견책 또는 제명할 수 있다.

제4장 조직

제7조 (총회) 총회는 본 모임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1. (구성)
① 총회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한 만 18세 이상의 성인회원
② 만 18세 미만의 회원인 경우는 회원 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대표
단, 선출절차와 비례대표 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2. (의장)
① 총회의 의장은 상임대표가 한다.
② 상임대표 불참 시 상임대표가 지명한 공동대표 중 1인이 한다.
3.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상임대표가 소집하여 열린다.
② 임시총회는 총 회원 1/3의 요구나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소집 할 수 있다.
③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의안과 일시, 장소는 총회 개최 7일전 총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의결)
① 총회는 회원의 참석으로 성립한다.
② 의결은 참석회원의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역할) 정기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논의하여 의결한다.
① 정관의 개정
② 공동대표 및 감사 선출
③ 운영위원의 선출
④ 사무국장의 선임
⑤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의 승인
⑥ 예산과 결산 승인
⑦ 모임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⑧ 기타 중요한 의결사항
6. 5항의 정관의 제·개정, 모임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은 참석회원의 2/3 이상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공동대표) 공동대표는 본 모임을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1. 공동대표는 2인 이상 5인 이내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공동대표 중 1인을 호선으로 상임대표로 한다.

제9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 총회까지 본 모임의 조직과 운영, 사업과 활동에 관한 중요사항들을 토의하고 결의하는 상설 의결기구이다.
1. (구성)
① 총회에서 선출된 공동대표 외 20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소모임의 대표, 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사무처·국장은 당연직으로 운영위원에 포함된다.
③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 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운영회의에서 선출 한 후 총회에 보고 한다.
2. (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상임대표를 제외한 운영위원 중 운영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3. (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월 1회 정기회의로 소집한다.
② 필요시 운영위원장 또는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4.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되다.
② 출석위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결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처리, 결의한다.
① 본 모임의 운영전반에 대한 총괄
② 사업계획 및 사업시행에 관한 보고 수리
③ 예산 및 결산
④ 재정에 관한 보고 수리
⑤ 사업별 위원회 및 소모임의 설치 및 폐지
⑥ 직원의 임명
⑦ 총회 구성원의 인준 및 회원 자격 심사, 징계, 복권의 결정
⑧ 총회 의안 및 정관 개정안의 제안
⑨ 각종 내규의 제정 및 개정
⑩ 총회가 위임한 사항 집행
⑪ 임시 총회의 소집 결의
⑫ 고문 및 자문위원 위촉
⑬ 기타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감사) 본 모임의 제반사업 및 재정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2인 이내의 감사를 둔다.
1. 감사는 사업과 재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기 감사를 년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2. 감사의 선출은 총회에서 한다.

제11조 (고문·자문위원)
1. (고문) 각 계의 원로 중에서 약간 명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2. (자문위원) 환경운동 및 단체운영의 전반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각 계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

제12조 (사무국) 본 모임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1. 우리 모임의 총회와 운영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을 수행한다.
2. 사무국은 매월 운동보고, 계획, 재정, 회원 상황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3. 사무국은 사무처·국장과 해당 사업부장 및 약간 명의 간사를 둔다.

제13조 (사무국장) 사무처·국장은 본 모임의 운영 전반에 대한 실무책임을 맡는다.

제14조 (위원회) 본 모임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영역별, 사업별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 된다.

제15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공동대표 중 호선으로 선출된 상임대표 임기는 중임에 한한다.

제5장 재정

제16조 (재정) 본 모임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기부금 그리고 재정사업 수익금으로 한다.
1. 본 모임의 재정은 월별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7조 (회계년도) 사업연도와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18조 (회계감사) 사무국의 회계연도가 지난 지 2개월 안에 예산회계 준칙에 따라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지난해 결산 안을 총회에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제6장 포상, 징계, 복권

제19조 (포상) 본 모임의 목적과 사업에 모범을 보인 회원, 임원, 소모임 등은 내규에 의해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 (징계) 본 모임의 목적과 사업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거나 본 모임의 공신력을 현저히 실추시킨 회원, 임원, 소모임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징계할 수 있다.

제21조 (복원) 징계된 회원, 임원, 소모임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복권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22조 (제한) 상임대표, 사무처·국장은 정당가입 및 당직을 겸임할 수 없다.

제23조 (준용 규정)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민주주의 원칙과 관례에 따른다.

제8장 부칙

제1조 (효력발생) 이 정관은 총회에서 통과된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임기) 창립 임원의 임기는 2011년을 기준으로 한다.

제정 2010년 11월 23일
개정 2016년 2월 25일
개정 2018년 2월 22일
개정 2020년 2월 25일
개정 2021년 2월 23일
개정 2022년 2월 22일
개정 2023년 2월 16일

2022 (사)전남녹색연합
성명/언론보도자료

전남
녹색연합
Green Korea Jeonnam

남도일보 보도일자 : 2022.1.7

여수 묘도 등 광양제철소 주변 환경피해조사 실시

광양만녹색연합, 환경단체 활동지원 사업 선정
현장 조사와 피해 사례 바탕으로 법률 지원

전남 여수 묘도에서 바라본 포스코 광양제철소/묘도 주민 제공

포스코 광양제철소 쇳가루 피해를 호소하는 전남 여수 묘도마을을 비롯한 광양제철소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 피해조사가 추진된다.

사단법인 광양만녹색연합은 오는 2022년 1월 6일 여수시 묘도 온동마을 회관에서 '제철소 주변지역 생활환경피해조사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광양만녹색연합과 한국환경사회학회, 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는 포항MBC의 '공해 2021'다큐멘터리 영상이 상영되고 김민정 박사(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의'제철소 주변 지역의 공해와 환경 불평등'강연이 진행된다.

이어 우경선 녹색법률센터 대표를 비롯한 박지혜, 최재홍 변호사들이'공해 피해의 법적 구제방안'을 주민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손문선 좋은정치시민넷 대표가 '익산 장점마을 집단 환경성암 피해 보상 사례'를 소개하고 박수완 광양만녹색연합 사무국장의 조사사업 설명, 주민의견 청취, 질의 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번 조사를 진행하는 3개 기관단체는 설명회 후 주민 피해 현황조사와 환경 분쟁 조정 신청을 통해 민사소송 제기 여부 결정, 광양만권 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지원 및 환경오염 저감과 책임 방안 마련을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 운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광양만녹색연합의 이번 피해조사는 세계적 환경 보호 단체인 '1% for the planet'의 환경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선정돼 추진된다.

이 단체는 '광양제철소 주변지역 공해 및 생활환경 피해조사'를 주제로 지원해 지난 8월 1차 서류심사, 9월 2차 미국 본사 심사 후 최근 최종 선정돼 사업비를 지원받았다.

1% For the Planet 사업은 파타고니아가 1985년부터 매년 매출의 1%를 지구 환경을 보호하고 되살리기 위해 활동하는 전 세계 환경 단체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내에서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60여 개의 환경 보호 프로젝트에 4억5천여만원을 지원했다.

광양만녹색연합은 이번 지원 사업비로 광양제철소 주변 지역 오염물질 저감방안 마련과 피해 주민 구제를 위한 입법 제안 및 제도 개선 연구 등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박수완 광양만녹색연합 사무국장은 "광양제철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피

해 원인을 방지할 수 있도록 '포스코 광양제철소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이루는데 기초 연구조사에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변지역의 먼지와 악취, VOC3, PHAS, 오존 발생 및 중금속 등으로 생활환경 피해는 물론 각종 호흡기 질환, 환경성 암 질환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현장 조사와 피해 사례 등을 바탕으로 법률 지원 및 환경소송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녹색법률센터와 협업해 사업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상시적 환경영향 조사와 주민 피해 보상 등이 제도적으로 가능하지만,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제철소 주변지역의 주민들의 환경피해와 피해 구제를 할 수 있는 관련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2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묘도 온동마을은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는 곳이다. 이들은 지난 수십 년간 제철소에서 날아오는 쇳가루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관계당국의 대책마련을 호소해 왔다.

특히 1급 발암물질인 아연과 카드뮴이 기준치보다 각각 7배와 3배, 2급 발암 물질인 니켈이 9배 넘게 검출되고, 수은과 납까지 검출되는 마을로 부각되면서 주민은 물론 지역정치권을 중심으로 실태조사 필요성이 제기됐다.

동부취재본부/장봉현 기자 coolman@namdonews.com

남해신문 보도일자 : 2022.1.14

광양제철소 주변 환경피해조사 주민설명회 개최

광양만권녹색연합과 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가 민간 조사 예정
남해에선 노구마을 주민과 남해군대기오염대책위 등 주민들도 참석

남해군에 인접해 있으면서 직·간접적으로 대기환경 피해를 입히고 있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한 민간 차원의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제철소에서 나오는 검은 철가루로 인한 피해가 직접적이라는 판단에 광양만권녹색연합이 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와 함께 피해상황을 심층 조사하기로 했다.

지난 6일 사단법인 광양만녹색연합 주관으로 광양시 전남도립미술관 2층 회의실에서 '제철소 주변지역 생활환경피해조사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광양만녹색연합과 한국환경사회학회, 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남해군에서는 직접적인 피해범위에 속한 서면지역을 대포해 노구마을 주민 4명과 남해군 대기오염대책위, 정의당남해하동지역위 관계가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는 포항MBC의 '공해 2021' 다큐멘터리 영상이 상영되고 김민정 박사(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의 '제철소 주변 지역의 공해와 환경 불평 등' 강연이 진행됐다.

또한 우경선 녹색법률센터 대표를 비롯한 박지혜, 최재홍 변호사들이 '공해 피해의 법적 구제방안'을 주민들에게 설명했으며 손문선 좋은정치시민넷 대표가 '익산 장점마을 집단 환경성암 피해 보상 사례'를 소개해 질의와 응답을 이어나가기도 했다.

이번 조사를 진행하는 3개 기관단체는 설명회 후 주민 피해 현황조사와 환경 분쟁 조정 신청을 통해 민사소송 제기 여부 결정, 광양만권 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지원 및 환경오염 저감과 책임 방안 마련을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 운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광양만녹색연합의 이번 피해조사는 세계적 환경 보호 단체인 '1% for the planet'의 환경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선정돼 추진된다.

광양만녹색연합은 이번 지원 사업비로 광양제철소 주변 지역 오염물질 저감방안 마련과 피해 주민 구제를 위한 입법 제안 및 제도 개선 연구 등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충열 기자 nhsm2020@hanmail.net

광양만뉴스 보도일자 : 2022.1.12

제철소 주변 생활환경피해조사 2월 본격 시작한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2년 연속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 1위를 기록하며 국내에서 최다 온실가스 배출 기업이라는 불명예를 얻고 있는 가운데 제철소 주변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해 및 생활환경피해조사가 오는 2월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더구나 이번 조사는 (사)광양만녹색연합이 전문연구기관과 함께하는 민간차원의 조사로 광양제철소뿐 아니라 포항제철소 인근 주변지역의 피해까지 조사할 전망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 6일 (사)광양만녹색연합을 비롯한 한국환경사회학회, 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 등은 전남도립미술관 대강당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제철소 주변지역의 공해 및 생활환경피해 조사 추진계획을 밝혔다.

앞서 광양만녹색연합은 세계적 환경 보호 단체인 파타고니아의 '1% for the planet' 환경 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선정되면서 이번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공동단체 등은 1987년 광양제철소가 운영된 이후 15년 동안 태인동 주민 75명의 암 발병 사망 민원과 관련해 2004년 주변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환경영향 조사가 있었지만 이에 대한 피해보상이나 제도개선 등이 마련되지 않아 이번 조사를 통해 제철소 환경오염 저감방안 마련과 지역주민 공해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적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포항MBC의 '공해 2021' 다큐멘터리 영상을 시청하고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김민정 박사의 '제철소 주변 지역의 공해와 환경 불평등' 강연, 박지혜 변호사의 공해피해의 법적구제 방안 설명, 손문선 좋은정치시민넷 대표의 익산 장점마을 집단 환경피해 보상 사례'를 소개했다.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김민정 박사는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되면서 CEO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마련됐지만, 최정우 회장은 다음날인 1월28일, 물적분할을 통한 지주사 회장에 오르면서 각종 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사고 방지를 위한 비용 투입과 내부 정책은 직접 결정하면서 책임은 지지 않게 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손문선 좋은정치시민넷 대표는 익산 장정마을 집단 환경피해 보상 사례를 소개했다. 손 대표는 "2001년 10월 익산의 작은 농촌마을에 비료공장이 들어서면서 주민들의 환경피해가 시작됐는데, 마을주민 집단 암 발병 사건과 관련해 19년 동안 주민들의 투쟁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비료공장 환경오염원 배출이 주민건강피해에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국내 최초의 비특이성질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사례가 됐다"고 덧붙였다. 또 손 대표는 지역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장점마을 환경피해 사건은 주민들과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정치인으로 구성된 민관협의회가 함께 해결한 것"이라며 "이들 모두가 없었다면 결코 해결하지 못했을 것이며 모두의 합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을 위해 광양만녹색연합 등 공동단체는 오는 20일까지 우선적으로 생활환경피해 주민을 모집한 후 25일까지 대상자 심의를 거쳐 최종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최종대상자가 선정되면 내달부터 설문과 심층 면담을 통해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구체적인 조사 지역은 광양시와 포항시, 여수 묘도, 경남 하동과 남해지역이며 상황에 따라 3월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5월에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수완 광양만녹색연합 사무국장은 “조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환경 분쟁 조정신청을 할 것인지 선택하게 되는 것”이라며 “광양만권 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지원 및 환경오염 저감과 책임 방안 마련을 위한 입법 및 제도마련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재생 기자

광양만뉴스 보도일자 : 2022.1.12

(사)광양만녹색연합 전남녹색연합으로 단체명 변경

전남목포신문/ 강정오 기자 승인 2022.03.18. 16:45

사단법인 광양만녹색연합은 지난 2010년 11월 창립 이후, 광양만권에 집중되어 있는 산단 감시와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해 생태계 서식지 보호 운동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교육 운동을 펼치고 있다.

2021년 총회 후, 공동대표 및 운영위원회를 통해 ‘광양만’ 단체명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한계를 극복해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었다. 광양만녹색연합은 기후위기 대응 및 탈탄소 전환을 위한 제도 마련과 녹색교육 운동, 대기 환경 감시 및 산단 대응 등이 이미 전라남도 권역의 대응을 펼치고 있음으로써 이에 적합한 단체명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광양만녹색연합은 지난 2월 2022년 13차 회원총회에서 단체명 변경에 따른 정관개정과, 3월12일 전국단위의 녹색연합 대표기구인 전국운영회의 승인을 받아 3월 내 ‘전남녹색연합’으로 단체명 변경을 할 예정이다.

‘전남녹색연합’은 단체명 변경을 통해 전남동부지역의 활동 영역을 전남의 서부지역으로 확대하여 전라남도의 기후위기 대응과 그린뉴딜 정책들이 실질적인 탄소를 줄이는 사업들인지 감시하고, 전라남도 및 기초자치단체의 탄소 감축 이행성과 등을 확인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야생동식물의 서식지 파괴를 막고 환경단체의 역할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에 전남녹색연합은 조직개편을 통해 사무국을 사무처로 확대하여 △사무처 구성과, 실무책임, 지역사회와, 전문기구와 소통은 박수완 사무처장 △회원사업 및 생태계 보호·보전 운동은 박미선 팀장 △산단대응 감시와 녹색교육 운동은 유지영 간사가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세대교체를 위해 청년활동가를 새롭게 배출할 예정이다.

‘전남녹색연합’은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과 탈탄소 전환사회를 위해 전라남도의 시민단체들과 연대하며 기후위기 전남비상행동 실무책임을 해나가며 국가산단인 광양제철소와 여수석유화학 산단 등에서 배출되고 있는 오염물질들을 감시하며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환경적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전남녹색연합은 모든 생명의 가치와 권리를 존중하며 생명의 터전인 산림생태계, 하천생

태계, 해양생태계 등을 보전하고 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지역민의 삶이 생태순환형 지속가능한 삶으로의 변화를 위한 녹색교육을 지속해 나갈것이며 광양만권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전라남도 지역민들과 연대하며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양재생 기자

광양시민신문 보도일자 : 2022.3.20.

(사)광양만녹색연합 전남녹색연합 재탄생
활동 영역 이미 전남 전역으로 확대 개편
조직 역시 사무처장 체제로 한단계 도약

광양만녹색연합이 전남녹색연합으로 재탄생한다. '광양만'에 한정된 단체명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한계를 극복해야 할 필요성이 지속 요구돼온 때문이다.

기후위기 대응이나 탈탄소 전환을 위한 제도 마련과 녹색교육 운동, 대기환경 감시와 산단 대응 영역이 이미 전남도 권역의 대응을 펼치고 있는 까닭에 이에 적합한 단체명으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오래전부터 제기된 상태였다.

이에 따라 광양만녹색연합은 지난달 올해 13차 회원총회에서 단체명 변경에 따른 정관개정과 지난 12일 전국단위의 녹색연합 대표기구인 전국운영회의 승인을 받아 이달 내 '전남녹색연합'으로 단체명 변경을 할 예정이다.

이번 단체명 변경을 통해 전남녹색연합은 전남동부권 중심의 활동영역을 전남의 서부지역으로 확대해 전남도의 기후위기 대응과 그린뉴딜 정책이 실질적인 탄소를 줄이는 사업인지 감시하고 전남도와 기초자치단체의 탄소감축 이행성과 등을 확인해 나갈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야생동식물의 서식지 파괴를 막고 환경단체의 역할을 이어갈 전망이다.

또 전남녹색연합은 조직개편을 통해 사무국을 사무처로 확대해 △사무처 구성과 실무책임, 지역사회나 전문기구와의 소통은 박수완 사무처장이 맡아 진행하고 △회원사업 및 생태계 보호·보전 운동은 박미선 팀장, △산단대응 감시와 녹색교육 운동은 유지영 간사가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전남녹색연합은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과 탈탄소 전환사회를 위해 전라남도의 시민단

체들과 연대 △기후위기 전남비상행동 실무책임 △국가산단인 광양제철소와 여수석유화학 산단 등에서 배출되고 있는 오염물질 감시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환경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앞장선다.

박수완 사무처장은 “전남녹색연합은 모든 생명의 가치와 권리를 존중하며 생명의 터전인 산림생태계, 하천생태계, 해양생태계 등을 보전하고 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지역민의 삶이 생태순환형 지속가능한 삶으로의 변화를 위한 녹색교육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광양만권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전라남도 지역민들과 연대하며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인철 hwakae72@gycitizen.com 출처 : 광양시민신문(http://www.gycitizen.com)

순천광장신문 보도일자 : 2022.06.07.

전남녹색연합, 당선자에게 환경 관심 촉구

2022년 6월5일 UN세계환경의날 50주년을 기억하며, 전남녹색연합(구, 광양만녹색연합)에서 6.1 지방선거를 돌아보며 지난 3일 성명문을 발표했다. 기후위기로 전남지역의 가뭄은 심각한 수준이며,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 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가뭄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전혀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녹색연합은 6.1 지방선거 당선인에게 ‘경쟁자의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흡수’하길 요구하고, ‘과도한 화석연료 소비에 기반으로 하는 정책들을 재검토’하길 촉구했다.

광양시민신문 보도일자 : 2022.09.05

기후위기비상행동 “화석연료·생명파괴 끝내야”
1일 전남도청 전남동부지역본부서 기자회견

기후위기전남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이 지난 1일 전남동부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화석연료와 생명파괴 체제를 끝내야 한다는 기후위기 비상을 선언하고 정부와 사회에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방향으로 ‘탄소중립 2050’ 법제화와 허구적인 ‘녹색성장’으로 기업과 자본의 새로운 이윤추구를 지원하는 장밋빛 기술이 기후위기에서 우리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양 말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가 목도하는 현실은 반복되는 기후재난이고 대다수 보통사람들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목숨을 위협하는 기후재앙을 목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의 화석연료와 생명파괴 체제를 종식하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이윤을 추구하는 성장중심의 발전을 끝내지 않는다면, 국가 내 불평등을 넘어 전지구적 불평등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더는 온전히 살아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남비상행동 상임의장인 현능스님(전남녹색연합 상임대표)은 이날 “그간 정부와 기업들에게 기후정의에 입각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해 왔으나 몇몇 정책과 제도 개혁으로는 기후위기를 해결하고 기후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위기를 유발하고 그 해결을 방치한 기득권 세력들에게 문제해결의 방향타를 계속 잡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알게 됐다”면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요구, 새로운 제안, 그리고 결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민 순천아이쿱생협 이사장도 “기후위기는 본질적으로 불평등하고 부정의하다. 기후위기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배출의 대부분은 기업의 이윤추구 그리고 부유한 최상위 계층의 막대한 부에 기반한 투자와 소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하지만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가난한 나라와 가난한 이들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후위기의 직접적이고 가장 주요한 원인인 화석연료와 생명파괴 체제를 종식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박웅두 전 곡성농민회장은 “기후위기의 최일선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그들은 가뭄과 산불로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긴 주민들, 서식지 파괴로 희생된 동물과 자연 생태계”라고 지적했다.

최인철 기자 hwakae72@hanmail.com

남도일보 보도일자 : 2022.12.14

광양만권 환경단체 "주민 건강권 확보·환경보건법 개정" 촉구
광양제철소 주변 환경피해조사 결과 발표
제철소 사회·경제적 책임 커... 거버넌스 제안

전남녹색연합 등 지역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14일 오전 11시 광양시청에서 '제철소 주변지역 환경피해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남녹색연합 등 지역 환경단체가 14일 오전 광양시청에서 '제철소 주변지역 환경피해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양준석 기자)
[전남/남도방송] 전남녹색연합과 광양만권 인근지역 주민들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주변 주민 건강권 보장과 피해 보상을 위한 환경보건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와 주민들은 14일 오전 광양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철소 주변지역 환경피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제철소 주변 지역 주민 생활환경과 건강권을 확보하고 공동체 복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대가 필요하다"며 "환경 취약지역 피해 보상을 위해 환경보건법을 개정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들은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전남대사회과학연구팀에서 여수 묘도와 경남 남해, 광양시 태인동, 경북 포항시 주민 등 총 34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며 "조사대상자들은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피부질환과 같은 만성질환부터 암과 같은 치명적 질환 발병으로 신체적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사와는 별개로 올해 4월 국립환경과학원의 '여수 온동마을 환경보건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철·니켈·크롬 등이 타 지역에 비해 높게 조사됐다"며 "온동마을 주민들의 소변 중 수인, 카드뮴, 혈중 납 농도는 제4기(2018~2020년) 국립환경보건기초조사 성인 결과보다 높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환경오염은 장기간 누적되고 이로 인한 신체적 피해는 잠복기간이 길어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질병으로 발병한다"며 "정기적인 건강 검진과 선제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광양제철소가 이같은 문제에 대한 책음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환경과 건강 피해 외에 경제적 피해 등이 적지 않았다"며 "이러한 현상에 광양제철소가 일정한 부분을 기여하고 있어 광양제철소가 사회경제적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경남 남해와 하동 지역 주민들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제철소 주변 지역 환경권과 주민생활을 위한 건강권을 함께 지키고 공동대응해 나가자"며 광양만권 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요구했다. 이들은 오는 22일 이번 조사에 참여했던 교수 중심으로 각 주제발표와 추가 대응 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주민 권익보호를 위해 각 분야 지혜를 모아 대안을 찾는 노력이 절실하고 법령 개정을 통한 피해보상도 중요하다"며 "지역 건강권 확보와 공동체 복구를 위해 광양제철소를 비롯해 법학전문가, 기초지자체와 기초의회, 국회의원들의 지속적인 토론과 논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양준석 기자 © 남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C 보도일자 : 2022.12.14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분진, 소음 등으로 전남 동부권만 아니라, 인근지역 주민들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시설 등 제철소 주변 환경을 위한 투자와 연구가 이뤄지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국회 입법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맞닿은 태인동 일대입니다.

제철소가 들어선 뒤 쇳가루와 미세먼지 탓에, 주민들은 흰옷 빨래를 널지 못합니다.

생활의 불편함은 물론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 김재생 / 광양시 태인동
"폐가 제일 안 좋고. 지금 옥상 같은데 올라가면 시커매버려."

광양만을 기반으로 한 철강 산업은
지역 경제를 일으키고
세계적인 수준까지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먼지와 악취, 소음으로 인한 제철소와 산업단지 인근 주민의 희생은
수 십 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양과 여수, 순천뿐 아니라 강과 바다 건너
경남 하동과 남해군 주민도 피해를 호소합니다.

* 권창훈 / 남해군대기오염대책위원회
"인체에 더 위해한 미세먼지는 지금과 같이 북서풍의
영향을 받으면 남해가 가장 심각하게 (피해를 받습니다.)"

전남녹색연합과 전남대학교 연구팀은 여수 묘도와 광양 태인동 등 주민 34명을
심층 면담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자들은 각종 호흡기, 피부 질환과 비염 등 증상을 보였고

암으로 가족과 이웃이 세상을 떠났다고 증언했습니다.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지역 기업들의 더 책임 있는 자세와 함께, 국가 차원의 피해 실태 조사, 국회 입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박수완 / 전남녹색연합 사무처장
"피해자가 (피해를) 증명하고 해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이것들을 들여다보고 원인을 찾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형태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포스코는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 3년간 약 1조8천억 원 규모 친환경 설비 투자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묘도 온동마을회관 입구에 대기질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성명서1	일자:22.03.17

광양시는 멸종위기 보호종들의 서식지인 세풍습지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
광양시는 세풍습지 앞 송전선로 개발을 중단하고 주민과 약속한 지중화로 추진하라!
한전은 광양시민 갈라치기를 중단하고 송전선로 개발을 중지하라!

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본부(이하 한전)에서 광양세풍일반산업단지 인근에, 154kV 광양항~율촌 T/L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2016년 백운~율촌 송전선로 건설공사 구간 중 초남~율촌 구간을 이미 지중화로 설계하도록 계획됐으나 2020년 한전의 사업변경신청서를 광양시가 송전선로 개발을 인가하면서 광양시민들의 지속가능한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이번 송전선로 개발 인가는 정현복 광양시장을 비롯 광양시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행정력을 확인하기에 이르렀다.

광양시는 당초 약속했던 지중화 계획을 철회하면서 단 한 차례의 세풍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한전의 송전선로개발 사업변경을 승인했다. 공사 승인 전, 송전탑개발로 인해 멸종위기 법정 보호종들이 서식하는 세풍 철새도래지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도 주민들에게 미치는 경제적 피해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한전에서 제출한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준수 협의사항 조차 꼼꼼히 살피지 않고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세풍 지역주민은 물론 광양시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지난해 12월 송전탑 공사과정에서, 천연기념물이며 멸종위기 법정 보호종 2급인 노랑부리저어새 발견 후, 광양시에 공사중지 행정명령과 한전에 세풍 철새도래지 공동 현지조사를 요구했다.

한전은 영산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 사항에 따라 법정 보호종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1~2월, 조류전문가들의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멸종위기 법적 보호종 9종의 서식과 그 밖에 조류 65종 2,021개체가 서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2차례 현지조사로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하면, 1년 동안 계절별 조류조사를 한다면 현지조사보다 3배 이상의 많은 종이 관찰될 것이라고 예상되며 개체수도 최소한 5,000마리 이상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견하고 있다.

현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양시의 유일한 광양만세풍습지는 겨울 철새 외에도 계절별 다양한 철새들이 도래하고 있으며 철새들의 서식지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

어 보존 가치가 높은 습지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전선과 추가적인 송전탑개발은 광양만 세풍 습지에서 해안이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새들에게 불편함과 전선 충돌을 우려하여 많은 철새가 서식지를 포기할 수도 있다고 한다.

이에 가) 광양만세풍습지보호 송전탑개발반대 광양시민공동대응(이하 세풍습지시민공동대응)은 광양에 유일하게 남은 광양만 세풍 습지 보호 및 보전을 위해 세풍 송전탑 개발을 반대하며, 세풍 습지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보호종들이 안전하게 서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광양시는 광양시민들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세풍습지의 가치를 발굴하고 생물종다양성 확보 등 자연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광양시장의 책무를 다 해 줄 것을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광양시는 한전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광양세풍산업단지 인근 154kV 초남~율촌 송전선로 개발로 인한 광양만세풍습지 보전에 악역향이 미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라!
하나, 광양시는 광양만 세풍 습지 4계절 조사와 세풍 습지 등록을 촉구한다.
하나, 광양시는 기후위기 대응과 생물종다양성 확보를 위한 광양만 세풍 습지 보전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광양시는 초남~율촌 송전선로 개발을 주민과 약속한 지중화로 추진하라!
하나, 한전은 세풍습지의 멸종위기 보호종 서식을 위협하는 송전선로 개발을 중지하라!

2022. 03. 17.

광양만 세풍습지 보호 송전선로 개발반대 광양시민공동대응

세풍발전협의회 세풍연합청년회 광양읍체육회 광양읍발전협의회 광양읍청년회
(사)광양만녹색연합 광양YMCA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양만환경포럼 광양교육희망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양지회 광양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광양진보연대
진보당광양시위원회 (사)한국농업경영인광양시연합회 광양상공인회

성명서2	일자:22.04.19

세풍저류지 멸종위기 보호 대책 없는 송전탑개발 공사재개 승인을 규탄한다.
광양시는 기후위기 대응과 생물종다양성 확보를 위한 세풍 습지 보전 방안을 마련하라

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본부(이하 한전)에서 광양세풍일반산업단지 인근, 154kV 광양항~율촌 T/L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지난해 12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법정보호종 Ⅱ급인 노랑부리저어새가 발견되었다.

세풍발전협의회와 전남녹색연합은 한전과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에 따라 법정보호종 보호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1~2월 공사 중지와 조류전문가들의 겨울 철새 현지 조사를 진행케 했다.

현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천연기념물을 포함한 법적 보호종 10종(멸종위기 Ⅰ급 매를, 멸종위기 Ⅱ급이자 천연기념물인 큰기러기, 큰고니, 노랑부리저어새, 독수리, 잿빛개구리매, 새매, 참매, 검은머리갈매기, 황조롱이)의 서식과 그 밖에 조류 65종 2,021개체 서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2차례 현지 조사로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하면, 1년 동안 계절별 조류조사를 한다면 현지 조사보다 3배 이상의 많은 종이 관찰될 것이라고 예상되며 개체 수도 최소한 5,000마리 이상일 것으로 예측한다.

세풍 저류지는 광양의 동·서천하구 주변 습지를 간척지로 조성하면서 만들어진 곳으로 갈대밭이 잘 발달 되어 있고 기수를 유지하고 있는 습지이다. 우점종은 흰뺨검둥오리이고 아우점종은 종다리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는 청둥오리와 민물가마우지, 혹부리오리, 대백로, 넓적부리, 쇠오리, 홍머리오리, 뿔논병아리 등의 순으로 많이 관찰되었다.

세풍 습지는 얕은 수심으로 인해 물새들의 휴식처이자 먹이터가 되고 있다. 문헌조사와 현지 조사를 종합해 볼 때 광양시의 유일한 세풍 습지는 겨울 철새 외에도 계절별 다양한 철새들이 도래하고 있으며, 철새들의 서식지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어 철새 서식지로서 보전 가치가 높은 습지라고 판단하고 있다.

한전이 개발 중인 154kV 광양항~율촌 T/L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저류지의 해안경계를 따라 예정되어있어 저류지와 해안을 수시로 넘나드는 저어새류, 오리류와 백로 등의 조류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송전선로에 조류 충돌이 자주 발

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전선과 추가적인 송전탑개발은 세풍 습지에서 해안이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새들에게 불편함과 전선 충돌을 우려하여 많은 철새가 서식지를 포기할 수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한전은 현지 조사 결과를 세풍 습지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보호종 보호 대책 마련보다는 송전선로 조류 충돌 저감을 위한 결과보고서로 축소 시키며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에 이어 한전 입맛에 맞게 조정하였다. 더욱이 광양시에 유일하게 남은 습지를 몇몇 마을 주민에게 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으로 매수하여 세풍 습지를 보전하고 지키려 하는 광양시민들의 진정성을 기만하였다.

한전은 법정보호종 저감 대책 및 이행계획으로 ①철탑 No.5~8 송전선로의 가공지선에 조류인지 가능한 전선 표지 설치 ②철탑 No.5~8 철탑 상하부에 각각 최소 2개의 근자외선램프 설치 ③신설 철탑 No.5~8 구간 하부 저류지 주변 기설 가공 배전 선로 지중화를 대책으로 내놓았다. 송전선로에 마커와 같은 전선 표지 부착과 지주에 근자외선램프 설치로 국내나 해외에서 조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성과를 낸 사례를 거의 찾아볼 수 없음에도 저감대책으로 내놓은 것은 옹색하기 그지없다.

현지조사 결과에서도 미국의 연구에 의하면 근적외선 램프(near-ultraviolet light)를 설치한 후에 캐나다두루미의 전선 충돌 가능성을 98%까지 줄일 수 있어 그 효과가 큰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하지만 한전은 조류 충돌 저감 효과가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근자외선램프 설치로 조류 충돌을 줄일 수 있다면 근자외선램프의 성과를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또한 광양항~율촌 송전선로 No.1~8 첩탑과 전선에 조류 충돌 저감 대책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No.5~8 일부 철탑에만 적용하려 하고 있다.

한전의 저감대책 이행계획은 노랑부리저어새나 야간에 이동하는 조류의 충돌을 최소화하기엔 미흡한 대책이다. 야간에 전선 충돌을 막는 증명할 수 없는 방법을 내세우며 송전선로로 인해 조류의 충돌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조류 충돌을 줄이는 정도에 머무는 졸속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해당 공사의 승인기관인 광양시는 광양의 유일한 습지 생태계의 보전과 보호의 책임을 외면하고 광양시민들이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조성에 대한 염원을 외면하였다. 한전이 제출한 졸속 법정보호종 저감 대책 및 이행계획을 관계부서의 의견이나 민원제기한 주민이나 시민단체와 현지 조사 결과보고서 검토도 없이 지난 4월 4일 서둘러 공사재개 승인을 처리하였다.

광양시의 생물다양성 보호 대책은 존재하는가? 공사재개 승인과정에서 한전이 내

세우는 저감 대책 방안들이 합당한지를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며 꼼꼼히 살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와의 협의 과정을 철저히 무시하였다. 광양시의 생태계 보호 및 생물다양성 인식 수준은 존재하고 있는지 엄중하게 묻는다! 광양에 유일하게 남은 세풍 습지의 보호와 보전 가치는 외면하며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어떠한 고민도 없이 공사를 서둘러 승인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 아울러 세풍 습지를 찾는 멸종위기 보호종들의 보호 대책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2. 04. 19

전남녹색연합

성명서3	일자:22.06.03

2022 UN세계환경의날 50주년

기후위기를 외면한 2022년 지방선거를 돌아보며

1972년 6월 5일 유엔은 ‘세계환경의 날’을 제정했다. 지금부터 50년 전, 대한민국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연속적으로 밀어붙이며 생태계 파괴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성장을 달성했다. 2022년 6월 50주년 세계환경의날을 맞아 유엔은 다시 “하나뿐인 지구”를 주제로 위기를 새롭게 인식하려 애쓰는데, 대한민국 새 정부는 과연 어떤 고민을 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2022년 세계 곳곳은 기후재난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벌써 섭씨 60도를 오르내리는 인도 기온은 히말라야 빙하를 위협하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최근 온실가스 농도와 해수면 상승이 예상을 뛰어넘는다고 경고했다. 국제사회에서도 얼마 전 6차 보고서를 채택한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탄소중립과 더불어 ‘회복탄력성’을 국제사회에 호소했다.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기준 온실가스를 반으로 줄이고 지구 평균온도 상승 1.5도를 지켜내지 못하게 되면 생태계 붕괴에 따른 인류의 파국을 막을 수 없다는 절박한 호소이다.

국내 상황은 어떠한가! 절기상 생명이 기운차게 퍼져나가야 할 이 시기에 전국은 물론 특히 전남지역의 가뭄은 심각한 수준이다. 강원도 산불을 비롯해서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되고 있지만,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전혀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유래없는 가뭄으로 인해 습지는 바닥을 드러내고 말라붙어 죽은 양서류들과 수서생물들의 실태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꿀벌들이 사라져 양봉 농가뿐만 아니라 과수 및 식량 생산에도 심각한 상황이다. 최악의 가뭄으로 인해 농민들은 심정은 말라붙은 농작물처럼 처참하다.

하지만 2022년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생태계 파괴를 기반으로 하는 토건 개발사업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기후 파국을 가속시키고 있다. 지금과 같은 생활의 편리와 풍요로움, 아파트, 자동차, 해외여행, 하이테크 제품, 주식 배당, 서구적 생활방식을 그대로 누리면서도 당면한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가! 2022년 6월 전국지방선거에서 전라남도는 도지사 및 5개의 기초단체장 및 17개의 군소지역의 후보 중 일부 진보정당 소수 후보자들만 기후위기 대응 정책들을 제시했다. 한때 진보를 앞세웠던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보수정당의 ‘개발과 성장’만을 앞세운 보수 정치를 대변한지 오래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정부는 물론이거니와 민주당이 앞세운 공약들을 살펴보면 풍요와 편의만을 위한 분별없는 탄소 소비정책들로 결국 시민들과 미래 세대들에게 지속가능한 삶을 보장해 주지 않을 것이다.

인류는 지금까지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다. 지금의 우리에게 직면한 분명한 문제는 무엇인가? 과거 1970년대 더 잘살아보자는 명분 속에서 하루 15시간 이상 열악한 노동환경과 인권유린을 견디며 일해 왔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파괴와 수많은 농민과 노동자들의 희생 속에서 지금의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혜택은 권력과 자본을 쥐고 있는 특권층에게 편중되어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더욱 심각해지고, 노동강도는 높아지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갈등, 세대 갈등, 급기야 성별 갈등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은 산재해 있다.

생태계 파괴와 생물다양성 감소가 초래한 코로나19는 전파력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으나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녹아내리고 있는 영구동토층 아래에서 앞으로 창궐할 감염병은 어떤 파국을 불러올지 누구도 알 수 없다. 50년 전 세계환경의날을 제정할 때 가졌던 경각심을 잊고 무한 성장과 무한 소비를 부추기며 지구 생태계가 감당할 수 없는 쓰레기를 배출하는 파국적 시스템을 지방행정이 먼저 솔선수범하며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생태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이제 지방선거를 끝내고 당선자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패배한 정당과 후보자와 관계자에겐 위로가 필요하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민주적 경쟁과 토론은 사라지고 과도한 네거티브로 얼룩져 공동체의 갈등은 심각하다. 당선자는 경쟁자의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흡수하고 전남도지사는 물론 기초 및 군소단체장들은 과도한 화석연료 소비에 기반으로 하는 정책들을 재검토해야 한다.

세계환경의 날 이후, 50년을 허비한 우리나라는 더는 지체할 수 없다. 늦었지만 행동해야 한다. 2022년 전국지방선거를 끝내고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오늘 반성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지방자치를 열어가기를 바란다. 편리와 낭비와 포만을 버리고 불편과 검약과 부족의 삶으로 전환하며 기후위기와 저성장의 한계 속에서 좋은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우리사회의 각계각층과 지혜를 모아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다.

2022. 06. 3

(사)전남녹색연합

기자회견문

일자:22.9.01

기후재난, 이대로 살 수 없다. 9월 24일, 광화문으로 모이자!

기후변화, 기후위기를 지나 이제 우리는 기후재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폭염, 산불, 가뭄, 홍수는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 왜 재난이 일상이 되고 있는가? 각국 정부와 대기업들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등 휘황한 말 잔치에도 실제로는 줄어들지 않는 온실가스가 끊임없이 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윤의 극대화, 급진적 성장 에만 집중해 지구 생태계를 끊임없이 파괴하고 착취하는 기업과 정부 탓이다. 이를 위해 사회적·종적 불평등을 지속하는 사회 체제 탓이다.

다시 묻는다. 이 기후는 누구에게 닥치는 재난인가? 누군가에겐 기껏 외제 차가 침수되는 일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잃는 재난이다. 기업들은 기후위기를 새로운 돈벌이의 기회로 여기지만, 다른 이들은 취약한 노동환경에서 재난으로 인한 죽음을 직접적으로 느끼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지만, 다른 누군가는 '피해의 최소화'를 바랄 수밖에 없는 것이 고작인 오늘날의 기후재난과 탄소중립 정책은 본질적으로 불평등하다.

기후재난 앞에 우리는 공포를 느끼고, 절망한다. 기업의 착취. 파괴적 이윤추구와 이를 뒷받침하는 성장주의적 체제가 기후재난의 원인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견고한 자본·기득권 정치 세력 앞에 무기력에 빠지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주저앉아 체념하고만 있지 않겠다. '이대로 살 수 없다,' 우리는 기후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을 바꿀 것이다.

우리 <기후위기 전남비상행동>은 지역에서 '기후정의'를 외치는 노동자, 농어민, 여성, 장애인, 빈민, 종교인, 반전주의자, 성소수자, 청년·청소년으로서 이 자리에 모였다. 또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동물과 숲, 바다를 대변하는 존재로서 연대한다. 우리는 '2050 탄소중립'이라는 정부의 선언에 안도하지 않고,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불평등한 체제를 넘어서서 살아남기 위해,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행동하기로 결의한다. 기후위기의 최일선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기후정의의 실현을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화석연료와 생명파괴 체제를 끝내야 한다.
온실가스 주요 배출원인 중 하나인 화석연료의 생산과 유통, 소비를 조속히 중단해야 한다. 또한 이를 대체할 재생에너지의 확대는 공공적, 민주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시장화된 화석연료 기반 교통, 운송 체계 역시 재생에너지 중심의 공공교통 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한편 사고위험과 방사성 폐기물로 기후·생태위기를 가중시키는 핵발전은 결코 대안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지구적 한계를 넘어서는 경쟁적 이윤추구를 넘어 재생과 순환의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
둘째, 모든 불평등을 끝내야 한다.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집단은 극소수의 부유층이다. 그리고 그들의 자본에 의해 고용·거래된 노동자와 빈민, 비인간 동물과 생태계는 소유물처럼 여겨지며 착취와 수탈에 고통받고 있다. 또한 기후위기로부터 가장 먼저 위협받는 존재들이다. 위기와 재난은 결코 평등하지 않으며, 불평등의 선을 따라 차별적으로 작동한다. 억압받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폭력과 피해는 집중된다. 차별과 불평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기후위기의 근본적 해결은 모든 불평등을 끝장내고 지구적, 사회적 평등과 정의를 회복하는 것이다.

셋째,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의 목소리가 더 커져야 한다.
'기후위기'를 초래한 기업과 자본, 정치인들에게 더이상 맡길 수 없다. 기후정의를 실현한다는 것은 기후위기의 책임을 묻는 것이며 위기 극복의 주체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최일선에서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온몸으로 겪고 있는 바로 우리들이 기후정의를 말해야 한다. 폭염과 홍수에 생명을 위협받는 주거빈곤층, 난개발에 고통받는 지역 주민들, 기후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농토와 일터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농민과 노동자들, 기후위기에 더 큰 위협을 받는 여성·성소수자·장애인 그리고 무참히 희생되는 동물과 생태계가 우리의 다른 이름들이다.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들로부터 시작되는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가 기후정의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재난과 위기는 우리에게 두려움과 절망을 안겨주지만 '기후정의'는 기후재난을 겪는 세계를 함께 헤쳐나갈 방향이자 대안이다. '기후정의'는 우리가 누구에게 책임을 묻고, 무엇을 변화시켜야 할지, 대안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 알려주는 방향타다. 우리는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있는 자본 권력에 적정한 책임을 부과하고, 정부가 불평등한 체제를 종식하도록 하는 기후정의행동을 시작한다.

9월 24일, 우리는 서울 광화문에서 모여 '기후정의'를 외치며 싸울 것이다. 기후위기 전남비상행동은 기후위기에 공감하고 기후정의를 갈망하는 180만 전라남도민들과 기후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서울 광화문 거리로 모여 외칠 것이다. 이대로 살 수는 없다.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 가자 광화문으로!
기후재난 끝장내기, 가자 광화문으로!
기후정의 실현하자, 가자 광화문으로!

2022. 9. 1
기후위기 전남비상행동

기자회견문

일자:22.11.28

국내 철강 사업, 2050 탄소중립 달성하면,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소와 함께 조기사망자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

2019년 포스코 포항제철소, 포스코 광양제철소,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고로 브리더 밸브를 개방할 때, 대기오염물질 저감 없이 배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후 민관합동대응팀 발족 후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협의를 통해 특정 조건으로 브리더 밸브를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승인받았습니다. 이처럼 제철소 발 대기오염물질 배출 문제는 제철소가 가동된 이래 지속되어 온 과제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제철소의 숨겨진 진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고로-전로 기반 일관제철소에서 2021년 한 해동안 배출된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국내외 조기사망자는 약 506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3개 일관제철소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화석연료 사용에 의존한다면,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조기사망이 2050년까지 19,355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3개 제철소의 2050년 탄소중립이 실현될 경우, 2050년까지 누적조기사망자 수가 10,052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연료 전환을 통한 제철소의 2050년 탄소중립과 이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 감소가 조기사망자를 포함, 각종 건강 영향이나 경제적 손실까지 줄일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로-전로 기반 일관제철소는 철광석, 유연탄, 석회석 등을 가공하고 연소하는 과정, 그리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등의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합니다. 2021년 한국환경공단이 공개한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설치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순위를 살펴보면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1위,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2위, 그리고 당진시에 위치한 현대제철이 1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시군구별 배출량 순위를 살펴보면 제철소가 위치한 광양시, 포항시, 당진시는 각각 2020년 1-2-3위, 2021년 1-4-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동안 제철소가 가동되며 유해물질 배출로 광양, 포항, 당진의 주민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대기질의 개선뿐만 아니라 제철소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의 해결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여, 문제 해결 과정과 결과가 정확하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연구는 제철소의 2050년 탄소중립이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임과 동시에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건강과 경제적 피해를 감축할 수 있는 방법임을 보

여줍니다. 이에 당진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과 전남녹색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그리고 기후솔루션은 수소환원제철 등 빠른 공정 전환을 통한 철강 산업의 2050년 탄소중립과 대기오염물질 저감 장치의 확대 및 강화된 배출량 관리를 요구합니다. 더불어 공정 전환에서 궁극적으로 탄소 배출과 더불어 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재생에너지 및 그린수소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전제될 것 또한 함께 요구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광양환경운동연합, 기후솔루션, 당진환경운동연합, 전남녹색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문

일자:22.12.14

제철소 주변 지역 공해 및 생활환경 피해조사 결과발표

광양만권은 국내 최대 규모의 산업단지로 제철산업단지와 석유화학 국가산업단지가 운영되고 있다. 광양제철소는 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석탄 연소 물질과 금속의 흄 및 반응 물질을 대기 중으로 배출한다.

제철소 주변 지역주민들은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분진, 악취, 소음 및 유해오염물질 등으로 생활환경 피해는 물론 호흡기질환, 환경성 암 질환 등 피해를 호소해 왔으나 국가와 지역사회는 제철소 주변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공해피해 및 생활사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공감은 부족하였다.

1982년 광양제철소 부지 건설이 시작되고 제철소가 운영되었던 지난 40여 년 동안 광양만권 종합환경영향조사를 통해 지역배출허용기준 설정 및 강화, 배출총량규제 도입 등 오염원 배출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관리규제 방안들이 마련되어 왔으나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공해피해에 대한 조사와 권익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전남녹색연합은 2003년 태인동 주민들이 광양제철소 운영과정에서 약 15년 사이에 64명의 암 발병 및 사망 등에 대한 원인을 조사해 달라는 집단 민원에서부터 그 조사결과를 재조명하며 제철소 주변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공해 및 생활환경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자 한다.

본 조사는 제철산업이 국가 경제성장과 광양만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긍정적 영향과 경제적 이익에 반해, 산단 주변 지역주민들의 건강, 환경, 경제, 공동체의 변화, 노후화 등 사회적 시각으로 그 현상을 살펴보고 앞으로 변화될 지역사회를 조망해 보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본 조사 참여자들은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 주변 지역주민들로, 평균 연령 64세이며, 평균 거주기간은 52년이다. 여수 묘도의 온동, 묘읍, 창촌마을 주민과 남해 노구마을 주민, 광양시 태인동 거주 주민과 포항시 해도동 주민 등 총34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며 조사대상자들은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피부질환과 같은 만성질환부터 암과 같은 치명적 질환 발병으로 신체적 피해가 심각하였으며, 이번 조사와는 별개로 2022년 4월 국립환경과학원 용역 조사결과 '온동마을 환경보건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철, 니켈과 크롬 등이 타지역에 비해 높게 조사되었으며, 온동마을 주민들의 소변 중 수은, 카드뮴, 혈중 납 농도는 제4기('18-'20)국립환경보건기초조사 성인의 결과보다 높게 나타났다. 혈중 카드뮴의

질환 발생률 분석 결과, 16개 질환 중 2006-2020년 비교지역과 대조지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질환은 급성심근경색, 치매, 호흡기질환, 소화기궤양, 간질환 및 당뇨로 분석되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환경오염은 장기간 누적되어 오염 정도와 그로 인한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긴 잠복기를 갖기 때문에 오염 피해에 장기간 노출될 위험이 있다. 특히 신체적 피해는 잠복 기간이 길어서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질병으로 발병하고 이후 피해조사를 하더라도 오염원과 역학관계를 인정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정기적인 건강 검진과 선제적 방안 조치가 필요하다.

경제적 피해로는 농어촌 중심의 경제활동이었던 지역의 생산 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거나 농작물 품종변경 포기 등 생산력 위축과 환경오염 취약지역이라는 부정적 낙인과 품평의 문제로 이미지가 훼손되어 농산물의 가치하락, 유통과 판매 문제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다. 농어업에 종사하던 지역주민들은 생산기반이 사라져 소득이 감소하고 임시직이나 일용직 근로자로 전락하였다. 일부 지역은 부동산 실물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상대적으로 지가가 하락하여 재산 피해가 발생되었다.

환경권과 일상생활의 침해로는 제철소로부터 날아온 분진과 쇳가루로 인해 생산 활동 외 여가활동이 위축되고 지역주민들의 일상적인 교류가 어려워지고 개인의 피해가 사회적 단위의 피해로 확산하여 마을과 지역의 사회교류 활동이 감소하였다.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도 심각하지만 공해문제로 인해 인구 유입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지역의 부정적 이미지로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되었다.

주요 환경이슈로는 1993년 5월 꿀벌의 떼죽음으로 시작되어 같은 해 6월 광양제철소 부지조성을 위한 준설매립공사로 인한 어패류 채취가 불가능해져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제기, 같은 해 9월 양봉 농가 피해를 보상하라는 분쟁조정위원회 판결과, 같은 해, 11월 하천 모래 채취로 바다화 현상, 1995년 광양제철소에서 배출되는 고로슬러그 매립으로 해양생태 파괴, 바다오염으로 인한 어장피해로 공사중단 요구, 2003년 다환족탄화수소(PAHs)검출, 광양만 유역 퇴적토 성분분석 결과 다환족탄화수소 등 발암물질 다량 검출, 그 밖에 2004년 시안유출, 온존 오염도 최고치 기록, 태금중학교 이전 요구, 당시 악취와 분진으로 많은 학생들이 현기증과 구토 증세를 호소하였다.

2005년 발암물질 오염 심각, 환경부 2010년까지 1단계 오염노출 및 건강영향감시 기반 구축을 시작, 서울대 보건대학원은 태인동 주민 건강실태조사 및 환경위해요인평가 용역 결과 광양제철소의 환경오염원이 태인동 주민의 건강상의 문제와 연관을 보이고 있으며 광양제철소가 이런 환경오염에 일정한 부분을 기여하고 있다고 분석하였으며, 광양제철소가 사회경제적 책임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호흡기 및 알레르기 질환, 심혈관 관계 질환에 있어 태인동 주민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발병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의 경우 정도가 더욱더 심한 것으로 확인돼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제철소 주변 환경문제는 지역주민들에게 지속적이고, 일상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경제·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을 밝혔다. 기존의 환경공학적 방법이나 실태조사와 같은 정형화된 접근보다도 주민들이 살아오면서 겪고 있는 불안과 불편, 상실감과 소외와 고립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으나 제철소 주변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이해하며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각 분야의 집단지성의 지혜를 모아 대안을 찾는 노력이 절실하다.

환경오염 정도로 인해 취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낮아지고 건강상 질병이 발생되더라도 현행법상 주민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의 어려운 이유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을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손해의 발생 등의 각 요건을 피해자가 입증할 것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국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를 조사·규명 및 감시하여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8년 3월 「환경보건법」이 제정되었고, 2009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등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기는 하나,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관리·구제함에 있어서는 한계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녹색연합과 광양만권 지역주민들은 이번 조사를 통해 제철소 주변 지역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핵임과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공감하며, 환경보건법 개정과 제철소 및 국가산단 주변지역 주민권익 보장을 위한 관련법 제정 등을 통해 제도적 장치와 개선방안이 마련되어 안정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과 건강권 확보와 공동체 복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제철소 및 국가산단 주변 지역사회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비롯, 법학전문가, 기초지방 자치단체의 의회 및 국회의원들과 지속적인 토론과 논의를 거쳐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2022. 12. 14

(사)전남녹색연합

Ⅰ. 민선8기 광양시 기후환경정책 제안서

1. 제안 취지와 필요성

기후위기, 불평등, 지역소멸, 노령화, 농업·먹거리 위협 등 산적한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전남녹색연합은 반복되고 심화하는 위기를 직면하여, 탈성장과 생태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우리 세계의 전면적인 개혁과 실천적인 변모를 도모하는 '녹색전환'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지금의 위기를 초래한 기존 경제 성장 방식에서 벗어나 '생태'와 '공동체'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고, 지역을 바탕으로 정의, 순환, 연대를 지향하며, 우리 삶을 둘러싼 모든 부분의 생태전환을 탐구하고 대안을 찾고자 민선8기 광양시 기후환경 정책을 제안합니다.

기후위기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한국도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7월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했고, 12월 탄소중립을 선언했습니다. 2021년 8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10월 탄소중립위원회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상향(2018년 총배출량 대비 2030년 순배출량40% 감축 목표)하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지만, 한국 사회가 실제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외치는 정부가 다른 축에서는 신공항 건설, 석탄발전 건설 지속, 무착륙국제관광, 유류세 인하 등 정책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후위기 대응, 그린뉴딜, 탄소중립 등 각각의 정책이 정확한 정책의 지향과 위계를 설정하지 못한 채 유행처럼 선언적으로 추진되면서 맥락을 제대로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2050년 이전에 탄소중립 사회를 만들어야 하고, 국내 시민사회에서도 2019년 9월 기후위기대응비상행동을 결성하고, 전라남도 풀뿌리 시민사회에서도 2020년 4월 기후위기전남비상행동을 결성하여 전남도와 기초단체의 기후정의에 입각한 온실가스 감축을 요구해왔습니다. 이미 많은 시민들은 코로나19 팬더믹 상황속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지금의 기후위기를 초래한 무한성장과 무한개발, 무한소비적 삶을

반성과 성찰의 기회로 삼으며 생태 발자국을 줄이는 삶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녹녹지 않습니다. 개인의 실천만으로는 기후위기 대응을 해 나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탄소중립과 같은 대전환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경제사회구조에 대전환을 가져올 그린뉴딜 정책이 필요합니다. 광양제철산단 및 시멘트 사업장에서 배출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탄소중립 실행 등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전라남도와 광양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의 주요 정책이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컨트롤타워 아래 정합성을 갖출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고, 지금의 혼재된 정책의 위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민선 8기 광양시장 정인화 당선인과 인수위원회의 역할이 절실할 때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 등에 따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별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상태, 정책 이행 등 편차가 크게 나타납니다. 앞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권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전남녹색연합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현실을 진단하고, 민선8기 광양시의 주요 추진 정책 등을 살펴 기후환경 정책의 원칙과 방향을 존중하며 새롭게 수립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2. 원칙과 방향

○ (우선성) 기후위기 대응 최우선 원칙

- 기후위기 대응은 0순위 입니다. 모든 지자체 정책에 기후위기 대응을 우선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 기후위기 대응, 불평등 해소, 탈탄소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경제, 사회, 돌봄, 보건, 문화, 환경, 교육 등 다양한 부분을 포괄하는 정책을 요구합니다.
- 이를 반영해서 정의로운 전환, 기업의 에너지전환 인센티브 제공, 마을 공동체 순환, 지역자치, 연대와 돌봄을 주요 가치로 삼아주세요.

○ (구체성) 구체적 이행기반 구축의 원칙

- 광양시의 온실가스 감축 및 정책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도록 산업분야, 비산업분야의 이행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 전환을 점검하고 목표를 세울 지표를 설정하고, 이행점검 평가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 (민주성) 정책의 수립·실행·이행에 있어 민주성의 원칙

- 시민·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아래로부터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 시민과 풀뿌리단체, 기후위기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농민, 노동자, 상인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의 관점과 참여를 바탕으로 기후환경 정책을 만드는데 민주적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광양시의회, 행정, 전문가, 경제, 문화, 주민자치회, 마을 공동체, 시민들이 형식과 격식을 내려놓고 시장과의 대화를 통해 광양시의 주요 정책을 묻고 소통과 연대가 필요합니다.

Ⅱ. 광양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4대 의제

4대 의제	광양시 기후환경 정책 제안 주요 의제
산업분야	○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18년 대비 40% 감축 수립 ○ 포스코 광양제철소 석탄발전 단계적 폐지 수소 전환 ○ 광양제철 산단 온실가스 배출 규제 및 감축 지원 ○ 그린항만 광양항 RE100 시스템 조성
비산업분야	○ 비산업분야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및 세부 이행계획 수립 ○ 도시재생 및 생태순환 에너지 자립 도시 단계별 구축 ○ 건물·교통·수송 탄소제로 인증제 도입, 신재생에너지 전환 ○ 광양시민 생태전환 실천운동 확산 ○ 광양시민주도 재생에너지 공동체 설립 지원 및 육성 ○ 광양시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위한 조례 개정
생물다양성	○ 백운산&섬진강 생물종 대조사 보전·보호정책 마련 ○ 광양시 생물다양성 깃대종 선정 생태친화도시 이미지 개선 ○ 녹지면적과 보호구역 확보, 자연보전 지역 및 보호구역 통합 관리계획 수립 ○ 해양·연안생태 보전을 위한 세풍습지 등록 보호 및 체계적 생태자원으로 활용 ○ 생물다양성을 살리는 생태농업 확대
정의로운 전환 기후돌봄 공동체회복	○ 에너지 전환사회 일자리 소외, 재흡수를 위한 지원정책 ○ 기후재난&감염병 팬더믹으로부터 돌봄 및 공동체 회복정책 강화 ○ 기후위기 취약계층 재난 돌봄 시스템 구축 ○ 기후재난 농업·먹거리 마을 돌봄 시스템 구축

Ⅲ. 분야별 핵심의제

의제-1 산업분야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18년 대비 40%감축

□ 제안배경 및 필요성

○ 국가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감축 목표

- (배출현황) 국가온실가스 배출량(2018년 기준) 7억 2704만 톤,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16위, 온실가스 총배출량11위, 1인당 배출량 세계 5위
- (감축목표)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2018년 대비) 2030년 40%, 2050년 탄소중립
- (평　　가) IPCC 제시한 표준 가이드라인 2030년 45% 감축안에 미치지 못함

○ 정부의 발전 및 산업·수송·건물 감축 목표

- (발전부문) 석탄발전 중단과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대폭 상향(액화천연가스 LNG발전등을 포함한 화력발전 전면중단)
- (산업부문) 수소환원제철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공정기술 도입과 화석연·원료를 재생 연·원료로 전환
- (수송부문)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통해 승용차 통행량의 감소 무공해차 보급률 85%~97% 이상 제시
- (농축산부문) 저탄소 영농법 확대, 폐기물 부문은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와 바이오가스 에너지 활용, 온실가스 최대한 감축계획
- (종합적) 주요 부문의 배출량 감축.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CCUS)의 활용, 흡수원 확대 등으로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 '0'으로 전환

○ 전남도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감축 목표

- (배출현황) 전남의 온실가스 총배출량 9,279만톤으로 17개 광역지자체 중 2번째, 전국 배출량의 12.5% 수준

- (산업부문) 제조업 및 건설업 연료 연소가 최대배출원으로 5,777만 톤으로 총 배출량의 약63.4%를 차지함
- (비산업부문) 전남의 비산업 부문 배출량은 1,226만 톤, 17개 광역지자체 중 6번째(전국 비산업 부문 배출량 1억8,925만 톤 수준)
- (감축목표) 2030 온실가스 28.2(2천8백만톤)백만톤, 2050 92.4(9천2백만톤)백만톤 감축으로 탄소중립 실현(2022.3월 비전발표)
- (후속준비) 환경부 정권교체 후, 2023년 3월까지 기초단체 세부이행계획 마련될 것으로 전망(당초 2022년 3월 세부이행계획 수립예정)

□ **정책 제안**

○ **포스코 광양제철소 석탄발전 2030년까지 단계적 폐지 수소전환**

- 협력과 지원을 통해 광양제철산단 탈석탄 및 Net Zero 달성 지원
- 시멘트 제조사 및 광양제철소 협력산업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전환 지원

○ **광양제철 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및 감축 지원조례 제정**

-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방진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및 규제방안 마련

○ **그린항만 광양항 RE100 시스템 조성**

- (에너지) 광양항 소비전력 탈석탄 소비전력(RE100시스템 도입), 정박선박에 벙커C유 연료 대신 신재생(태양광·풍력)에너지 전기공급화, 광양만 대기오염 저감효과

○ **광양시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위한 조례 개정**

의제-2 **비산업분야**

비산업분야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및 세부이행계획 수립

□ **정책제안 배경 및 내용**

○ **도시재생 및 생태순환 에너지자립 도시 단계별 구축**

- (도시계획) 기후환경문제 진단을 통한 에너지자립 마을 확대
- (가로수&공원) 가로수 관리 전면 재검토, 도시경관 고려, 도심열섬 현상 완화, 폭염 태양열을 피해 걸어서 이동할 수 있도록 가로수 전지작업 개선, 자외선 노출

및 오존 피해로 인한 건강권 훼손 개선

- (도심공원 및 마을공원 활성화) 주거지 인근 시민들의 산책과 쉼, 쇼핑, 여가활동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생태적 공간조성

- (주차장) 도심 주차장 태양광 시설 확대로 에너지자립과 시민들이 햇볕을 피할 수 있게 지붕 조성, 주차장 태양광 발전 시스템으로 전기자동차 충전 확대 에너지 자립화 설계(관련 조례 규제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 필요)

○ 건물·교통·수송 탄소제로 인증제 도입 신재생에너지 전환

- (공공건물) 2025년까지 단계적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 의무화
- (신규건물) 에너지제로 건축, 에너지자립 의무화 및 지원정책 확대
- (기존건물) 그린리모델링 정책 확대(2025년까지 000개소) 목표 선정
- (주택) 주책 및 민간건물 탄소제로 등급에 따라 보조금 지원정책 확대
- 탄소제로 인증제 도입, 친환경 건물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
- 애너지 자립마을 시범 운영, 탄소제로 등급에 따라 지방세 감면, 인센티브 제공 지원 확대
- (자가용)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공유자동차 시범 도입
- (대중교통) 무상버스 성인 확대 적용(자가용 없어도 불편하지 않은 도시구축 노력)
- (화물수송)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노후경유차 폐차지원외 철도수송 정책 개발

○ 광양시민 생태전환 실천운동 확산

- 광양시 공무원 및 주민자치위원 등 기후위기 인식 환경교육 의무화

(충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에 따라 소송 공무원 매년 4시간 이상 환경교육 이수제도)

- 광양시민 대상 생태전환교육 예산확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본학습권 지원
- 1인 1 나무 심기(탄소중립 정책 실천운동)
- 일회용 포장재 사용 감소 및 핵가족 오일장 소비 확대 청년인프라 지원
- 우리동네 쉼터 만들기 자투리 공간 공유텃밭, 정원 만들기 지원
- 주거 및 건물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지원 재생에너지 자립화
- 생산 유통 과정에서 버려지는 먹거리 최소화
- 공공급식 주 1회 채식 의무화 채식 식단 확대

○ **광양시민주도 재생에너지 공동체 설립지원 및 육성**

- 광양 소비전력량 기준 재생에너지 설비 태양광·풍력 확대
-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 지원조례 제정(마을&시민주도 햇빛발전소 지원)

○ **자원순환 공공성 강화, 재정을 늘려 노동환경 장비 인프라 개선 산업재해 방지**

- 현재 생활 폐기물 절반 이상, 그 외 산업폐기물 대부분 위탁처리에 의존하고 있음, 폐기물 처리 및 자원순환의 공공성을 강화, 생활속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려는 지자체 및 시민들의 노력 필요

의제-3 생물다양성

생물다양성 증진 백운산&섬진강 생물종 대조사 및 연안습지 보호 정책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생물다양성 국가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 생물다양성협약 제6조에 따라 협약 당사국 생물다양성 국가전략 이행계획 수립해야 함

○ **생물다양성 현황과 보전 정책**

- 국내 확인 생물종수 2013년 기준 41,483종, 지난 20년간 난개발로 농지의 15.9%, 갯벌의 20.4%, 산림의 2.1%가 감소 되는 등 서식지 훼손으로 주요 감소 추이가 전망됨
- 광양시 멸종위기 동식물 서식지 보전 및 보호를 위한 구체적 계획이나 목표없음

□ **정책 제안**

○ **백운산&섬진강 생물종 대조사 보전·보호 정책 마련**

- 생물다양성은 우리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식량, 연료, 산업 자재, 의약품 등을 공급해 주며 다양한 환경조절 기능이 있음
- 백운산&섬진강 생태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서식지 보전 정책과 생태

자원 활용을 위한 방안 마련

- 순천, 여수지역과의 차별적인 생태자원 연구와 활용, 보전을 위한 다각적 접근

(※산업도시에서 관광 인프라 구축은 어려운 현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정책보다는 국립공원지정을 통해 인근 지역의 관광인프라와 차별화를 두고, 국가가 관리 하고, 지역주민들의 먹거리, 경제활성화 등 지역경제 특수성을 어필할 필요가 있음)

○ 광양시 생물다양성 깃대종 선정 생태친화도시 이미지 개선

- 광양시를 상징할 수 있는 깃대종 선정, 산업도시 및 공해 도시 이미지에서 생태친화적인 깃대종 홍보로 이미지 변신의 노력 필요
- 광양 백운산과 섬진강을 상징하는 두꺼비(두꺼비 인식 및 이미지:물과 뭍을 오가는 생물종으로 건강과 재운을 상징하기도 하며, 예로부터 사람들에게 이로운 존재로 인식되어 있는 야생동물임)를 깃대종으로 선정하여 광양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자연 친화적인 두꺼비 상품화 발굴, 기념품 판매처 확대, 지역 이미지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녹지면적 확보, 자연보전 지역 및 보호구역 통합 관리계획 수립

- 광양제철 산단 및 항만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환경 오염물질 등이 대규모 주거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완충 녹지 비중을 높여야 함
- 자연보전 지역 및 보호지역 통합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농지·산림·초지·습지 복원·보호 관리 전략(재) 수립, 흡수·저장량 산정 체계 고도화 등을 녹색전환 계획에 연동
- 환경영향평가 업체 선정 시, 지역 시민사회 참여 보장

○ 해양·연안생태 보전을 위한 세풍습지 등록 보호 및 체계적 생태자원 활용방안

- 세풍 송전탑 개발 단계에서 세풍철새도래지에서 멸종위기 보호종 Ⅰ급 및 천연기념물 포함 10종의 멸종위기 보호종 Ⅱ급 조사 됨
- 세풍철새도래지를 습지로 승격 등록하여 체계적으로 보호 및 관리방안 마련
- 광양의 유일한 세풍습지는 겨울 철새 외에도 계절별 다양한 철새들이 도래하고 있으며 도심 내 습지로 보전할 가치가 충분하여 광양지역 어린이들이 새들을 조망하고 만날 수 있도록 친환경 정책 사례를 만들 수 있음

(※일본의 야츠 갯벌의 경우 산단과 대규모 아파트 개발, 고속도로로 둘러싸여 새들이 서식하기 어려운 여건이라고 판단하였지만 지역주민들의 노력과 지자체가 갯벌을 보호하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 1993년 세계 람사르습지로 등록, 훌륭한 탐조시설이 들어서고 1996년 람사르협약 당사국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국제교류와 많은 관광객들이 새들을 탐조하기 위해 야츠 갯벌을 찾고 있으며 시민들의 자긍심의 공간이기도 함)

○ 생물다양성을 살리는 생태농업 확대

- 기후위기는 곧 식량의 위기이기도 함. 기업농, 산업농 중심에서 벗어나 생물다양성을 살리는 농업으로 확대, 숲을 훼손하지 않는 농산물 생산 지원
- 화학비료 사용을 제한하며 토양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비닐 등 외부 자재와 석유 사용 농기계를 사용을 줄이고,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생태농업'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 친환경 농업 면적 확대
- 식량 자급률을 높이며 수질을 개선하고 토양의 비옥도 증진,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폐기물 감소를 위한 계획수립
- 청년 및 귀농인에게 친환경 농업 지원확대, 생태농민 육성정책(기본급지급) 강화
- 토종씨앗 보급하고 육성하기 위한 조례 제정
- 유기농, 자연농업, 순환농업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 : 학교에서 텃밭 교육 확대

의제-4 기후정의 기후돌봄

에너지전환사회 지원 및 기후재난&감염병 팬더믹 재난 돌봄 시스템 구축

□ 정책제안 배경 및 내용

○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사회에서 일자리 소외 재흡수를 위한 지원정책

- 다량의 탄소 배출을 기반으로 하는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탄소세 압박 및 RE100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국제경제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전환과정에서 지역의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 일들이 발생 될 수 있음
-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직업, 화력발전소, 시멘트 제조사 등 다량의 탄소를 배출하는 사업들이 전환되는 과정에 다수의 실업자들이 지역을 이탈하지

않도록 재생에너지 산업 중심의 교육, 재흡수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센터 설립 필요

- 에너지전환 사회와 공해 문제 등으로 주거환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산단 인근 주거지에서 신규아파트 단지 및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주민들로 인해 지역상인 등 이해당사자 간의 대책 마련 및 지원정책(포항시의 지역사례 연구 필요)

○ 기후재난&인수감염병 팬더믹 재난 돌봄 시스템 구축

- 홍수와 가뭄, 폭염 등 다양한 기후재난이 빈번하게 발생 될 수 있음
- 재난 발생에 대처할 수 있는 기금 마련과 마을 공동체 회복을 통해 돌봄 시스템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 기후위기 취약계층 재난 돌봄 시스템 구축

-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률은 소득, 연령, 지역, 주거 형태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함, 저소득층, 1인 가구, 고령, 농촌지역이 폭염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야외노동자, 고령층 등 폭염 취약계층은 코로나19등 감염병, 한파, 홍수 등 다른 재난에도 취약함.
- 무더위 쉼터 운영, 그늘막 설치 등 일시적 노출 저감을 위한 대책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여건 개선, 노동 여건 개선 등 근본적 역량 강화 대책이 필요함

○ 기후재난 농업·먹거리 마을 돌봄 시스템 구축

- 홍수와 가뭄, 폭염, 태풍 등 다양한 기후재난으로 인해 지역 농산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과 현실적인 재난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지자체 돌봄 시스템이 구축 되어야 함
- 에너지 및 전기료 인상 등을 고려해서 지역 농업에 재생에너지 전환 필요
- 기후재난 발생으로 인해 지역 농어업인들의 피해를 함께 돌볼 수 있도록 마을간 공동체 회복과 소통 기회 확대

〈 같이 살자 〉

솔가와 이란

개미 지렁이 고라니 호랑이 느릿느릿
발걸음 맞춰봐 같이!
먹고 자고 마시고 싸고 필요한 모든 걸 가졌어 우리!
바람과 물을 따라 여기에 모인 우리
볶아먹고 비벼 먹고 무쳐먹고 지져먹고
방귀 뽕! 트름 꺽! 걱정없이 같이 살자

두물머리 지렁이 강정의 고래들
밀양의 할매들 영덕의 대게도
방귀 뽕! 트름 꺽! 걱정 없이 같이 살자

같이 산다는 건 날 덜어내고 너를 채우는 일
같이 산다는 건 내 우주 너의 우주 만나는 일

같이 산다는 건 날 덜어내고 너를 채우는 일
같이 산다는 건 내 우주 너의 우주 만나는 일

같이 살자 같이 살자꾸나
같이 살자 같이 살자꾸나

같이 살자 같이 살자꾸나
같이 살자 같이 살자꾸나

같이 산다는 건 날 덜어내고 너를 채우는 일
같이 산다는 건 내 우주 너의 우주 만나는 일